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급변하여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있는 이 시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7월 15일 (토) 제 164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동성애는 '인권' 아닌 '죄악' 이다!

WP, "젊은 미국백인복음주의자들, 동성혼 친우호적 성향 변화" 진단 보도

미국에서 동성결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법으로 자리 잡았다. 동성애자는 감금되고, 구타당하고, 저주받고 살해되던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사랑'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됐다.

익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 증진한 대통령이다. 그는 2009년 1월 취임 후 미 대통령 중 처음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백악관에 초대했다. 그해 10월에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해 피...



미국의 젊은 백인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동성결혼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동성혼에 대한 태도는 세대 간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퓨 리서치센터의 최근 설문 결과에 따르면 1964년 이후 태어난 기독교인의 47%가 동성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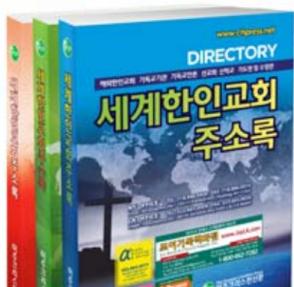
다고 말한다. "젊은이들은 어떤 사안이 법제화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 정당성이 부여되고 제도화되는 것이죠."

성향을 보인다. "누구나 결혼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라는 태도다. 그러나 백인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가톨릭교인, 백인 주류 개신교인, 흑인 개신교인들과 함께 다른 종교 집단에 비해서 동성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리도 없기에 LGBT 이슈는 여러 교회 및 기관 간 분열을 초래했고, LGBT를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복음주의자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여전히 대부분의 대형 교회에서는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지만, 그러한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정] 본지 1639호 1면 탐기사 중 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시절(1929년) 뉴딜 정책을 펼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1933-1945)와 다른 인물임을 밝힙니다.

사 고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8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18년도 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다. "2018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돼 있다.

리스팅 작업 마감 9월말, 광고 10월초 마감

단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명실공히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18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9월말이며 광고 마감은 10월초까지 가능하다.

주소록 광고담당 직원 모집: "2018년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에 삽입되는 광고 세일즈 할 분을 모집한다. 좋은 조건의 커미션을 제공한다. 지역은 미 전역과 한국, 전세계도 가능하다.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Staff list with photos and names: 시론 은희곤 목사,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담수 목사,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브리질 한국인 선교역사 강성철 선교사, 인/터/뷰 김영자 선교사 (우간다)

Large advertisement for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Includes logo, title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ebsite www.rptseast.org, and details about 2017 fall classes and admission.



시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얼마 전에 이와 같은 글이 배달되었는데 마음에 깊이 와 닿아 소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犬)를 키운다고 합니다. 이 두 마리의 개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선입견"이고, 또 하나는 "편견"입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의 특별한 개가 있다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개"입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직접 보지 않고, 들은 얘기로 상대를 판단하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개의 애칭은 '일견'(一見)이라고 합니다. "일견"을 키우면 "선입견"과 "편견"을 제압하고 정확한 눈으로 상대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일견"을 키우면서 상대를 바르게 보는 혜안을 갖아야 하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상대방의 진심을 오해하거나, 상대방이 우리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속에서 키우는 두 마리 개 즉 "선입견과 편견"을 마음 밖으로 풀어 주시고, "일견" 한마리 분양 하시지요(유아스태이지 웹사이트 캡처).

우리의 일상생활 앞에 놓여 있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선입견과 편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오해 받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 하고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들도 이런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들로 상대방을 오해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스스로 겪는 내면의 갈등과 불안은 결국 관계의 파괴를 가지고 오지 않나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 "선입견과 편견"은 내려놓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열린,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기록관자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라보기에는 예수님은 율법과 기록권을 파괴하는 혁명분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계략들을 꾸렸는데 그 첫 번째가 세례의 문제였고(마22:21)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간음한 여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찾기 위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이들은 단지 정죄와 처벌만을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하시고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앉으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가차 없이 마음과 행동으로 정죄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동일한 율법의 잣대로 "너희들 스스로를 비취보라. 너희들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이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화두를 던지고 두 번째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선입견과 편견으로 정죄하는 대상이 아니요, 구원의 대상으로 만나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깊은 용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손에 돌을 들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내 손에는 끊임없이 돌이 들려져 있을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간음한 이 여인도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자비와 긍휼로 구원받고 생명의 빛으로 회복되지만 한다면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첫째 딸은 로루하마(Lo-ruhamah)이고, 둘째는 아들이었는데 이름이 로암미(Lo-ammi)입니다. 히브리어에 "로"가 접두사로 붙으면 강한 부정, 즉 "Never"을 뜻합니다. "암미는 내 백성",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인데 "로(Lo)"라는 접두사가 붙어 "로루하마는 절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로암미는 절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세아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고 하십니다. "암미, 루하마" 즉 "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백성"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언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21절).

우리 모두는 다 "로루하마"요, "로암미"이지만, 간음한 여인처럼 주님과 대면해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루하마"가 되고 "암미"가 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는 다음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요8:11).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pastor.eun@gmail.com

미국에 테러리즘과 중동정책은 뗄 수 없는 관계

뉴스위크, 테러전문 랜드연구소 브라이언 마이클 켄킨스의 향후 테러 방향성 타진 접근 방법 보도

분석가들과 정보 당국자들은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테러 범법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측하려 애쓴다. 테러범들이 핵무기로 대량살상이나 맞춤형 병원균으로 세계적인 유행병의 확산을 꾀할까? 더티밤(dirty bombs, 방사능 오염폭탄)으로 도시들을 오염시킬까? 신기술에 정통한 테러범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력망이나 기타 핵심 인프라를 원격으로 파괴할까? 테러범들이 전자기기를 파괴하는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s)를 쏘아 현대기술에 의존하는 우리 사회를 '매드맥스' 영화에서처럼 황량한 원시시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후대형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는 랩톱 컴퓨터에 숨겨거나 체내에 외과적으로 이식한 소형 폭탄을 터뜨려 비행기를 격추시키려 할까? 수류탄이나 탄저균 또는 단순한 백색 가루를 실은 무인기로 스타디움에 가득 모인 군중을 공격해 대혼란을 초래하는 공포를 불러일으킬까? 또는 개별적인 광신자들이 대규모 들고 일어나 군중 속으로 트럭을 들이박고, 식당 손님들을 공격하고, 그 밖의 원시적이지만 사전 저지가 거의 불가능한 공격을 저지할까? (Can We Predict Where Terrorists Will Strike Next?).

이런 시나리오는 끝이 없으며 우리에게 무력감을 안겨준다. 모두 공개적으로 논의된 시나리오들이다. 분석가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인터넷에 생생한 환상을 퍼뜨리는 테러범들도 가능한 일이다. 이 중에는 힘 있는 적하는 자기만족형 허풍이 있는가 하면 공포를 조장하려는 테러범들의 공세를 입증하는 내용도 있다.

거의 어느 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9·11 테러의 비행기 납치범들이 범행한 주 전에 체포됐다면 그들의 계획은 말 그대로 얼토당토않은 구상으로 끝났을지 모른다.

최근 존 켈리 미국도안보부 장관은 미



중동·북아·서아 인접지역 분쟁 지속...주요 테러위협 근원으로 남을 듯 수직적이거나보다 수평적 확산...4분의3 이상 폭탄 사용, 저장도 공격

국인이 테러리즘에 관해 자신만큼 안다면 "절대 짐을 나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병대 4성 장군이 던지는 비판적인 메시지다. 분석가들이 미래를 내다 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테러리즘의 동향을 파악한 뒤 그것을 토대로 예측하는 방법이다.

그런 방식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니다. 글로벌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Global Terrorism Database)의 1970-2001년 데이터에 따르면 최대 테러 공격의 사망자수는 10-15년마다 한 자리 수씩 증가해 수천 명이 희생된 2001년 9·11 테러로 절정에 달했다.

9·11 테러 직후 테러범들이 계속 몇 배씩 증가하리라는 가정이 지배적이었다. 수만 또는 심지어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시나리오까지 나왔다. 이만한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하려면 생물학 또는 방사능 무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는 말 그대로 추정에 그쳤다.

미래를 전망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세계 정세를 예측해 이것이 테러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는 것이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새로운 지하드(성전) 극단주의자 무리가 발호하리라고 정확히 예측했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무정부주의의 부상으로 폭력적인 극좌 세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예상이 많았지만 그것은 오판으로 드러났다. 시리아와 인접 지역의 분쟁이 앞으로도 여전히 미래 테러리스트 폭력의 근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접근법은 테러범들이 새로 등장하는 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살펴보는 방법이다.

몇 년 전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테러범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을 간과했다. 당시 태동 단계에 있던 인터넷은 테러범들의 통신·모집·전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는 테러리즘의 본질이 대

체로 인식의 조작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분석가들은 현재 테러범들의 무인기와 사물인터넷 이용 가능성을 조사한다.

네 번째 접근법은 테러범 입장에서 미래의 공격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방법이다.

이는 상상력의 부재를 방지하는 방법이지만 종종 가능성이 예측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1980년대 초 켄킨스는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납치해 대형 빌딩을 들이받을지 모른다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다. 그에게 어떤 예지력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4면에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p>·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lachpress@gmail.com</p>	<p>·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Aviation Management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L,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2017년 항공학과 신설

국제 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 운항사, 객실 승무원 양성

본교에서는 F-1 Visa 와 J-1 Visa 를 발행하며 집중영어교육(항공전문영어), 비행 조종 실습 및 항공사에서 인턴십도 가능합니다.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교사,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571) 730-4750 / Fax:(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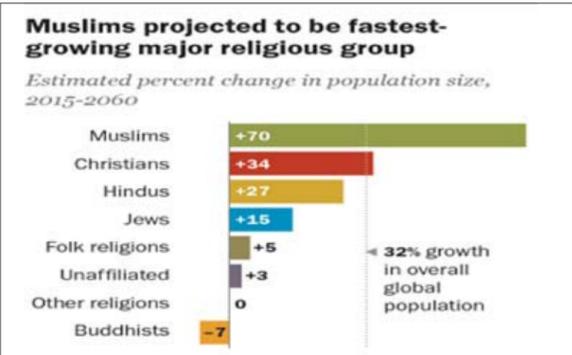
이슬람, 출산율로 세계 최대 종교 부상!

퓨리서치 보도...2010-2015 세계인구 비율 24%지만 신생아 비율은 31%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35년에는 무슬림 가정에 태어나는 아기가 크리스천 가정의 신생아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람이 세계 최대 종교로 부상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기 수가 2010-2015년 세계 전체의 64%에서 2055-2060년 71%로 늘어나면서 종교가 없는 가정의 신생아 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Why Muslims are the world's fastest-growing religious group).

조사는 연령과 생식력의 지역별 동향에 따라 큰 폭의 인구변동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같은 지역의 신세대 기독교도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유럽의 고령자 기독교도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에선 2010-2015년 기독교도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140만 명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 가정의 출산율은 낮다. 종교가 없는 그룹이 세계 전체 인구 중 16% 선을 차지하며 2010-2016년 이들 그룹의 신생아는 10%에 그쳤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2055-2060년 종교 없는 그룹의 출산율이 9%로 떨어진다고 조사 보고서는 예상한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중국·일본·유럽·북미처럼 고령자가 많고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 집중됐다”고 퓨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면 출산율이 높고 영아사망률이 하락하는 개도국에 추종자가 많은 종교는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이슬람과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 무슬림 신생아 2억2500만명 기독교도 아기는 2억2400만명 추정

전망이다. 세계 인구 중 무슬림의 비율은 24% 선에 불과하지만 2010-2015년 세계 전체 신생아 중 무슬림 아기가 약 31%를 차지했다.

기독교도 수가 무슬림보다 더 많지만 2030-2035년 무슬림 신생아는 2억2500만 명, 기독교도 아기는 2억2400만 명에 달한다고 조사는 추정한다. 전체적으로 세계의 기독교도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독교도 신생아가 세계 전체의 33%를 차지해 2010-2015년 세계 인구 대비 비율 31%보다 약간 높아진다.

동성애는 ‘인권’ 아닌 ‘죄악’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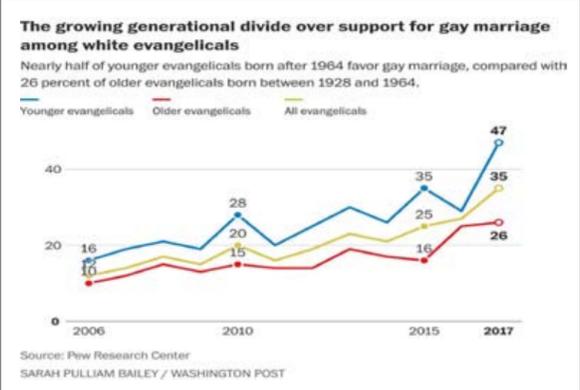
(1면에서 계속)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LGBT 문제는 어린이 세레나 여성목사의 문제처럼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계속해서 이야기해나갈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정책으로서의 동성혼 법제화를 지지하는 것과 교회가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보기도 한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성경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대를 불문하고 다수이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이처럼 진보주의 진영의 물량공세 즉 언론, 행정부 그리고 사법적 권한 등등을 총동원해 동성결혼을 인권으로 격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여전히 죄악으로 인정한다. 성경은 인간의 정체성에 관해 관대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선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구속론적 해석에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엡2:1-3; cf. 갈4:3; 골1:13; 요3:3; 5:6; 롬1:18-20)의 대상이다.

인간의 첫째 임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

고, 그와 동시에 문화적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맥락에서 성경은 인권을 말하기에 앞서서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의 헌법이 공히 맥락을 같이 하는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예배적 관계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특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을 강조한다.



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대상”인 사람을 구원하시는 신권을 강조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메이플라워서약, 독립선언, 세계 인권선언, 미국

성경에서 굳이 인권을 찾는다면 타락하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관계회복”(the restoration relationship)이라고도 한다. 즉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회복, 사람과의 신뢰 회복

이다. 신약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갈4:19),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롬12:2)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약 성경은 인종, 신분,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뤄지는 자유와 평등을 말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3:28; cf. 고전12:12-13; 롬10:12; 골3:9-11).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의 정체성을 가진 크리스천은 개인의 사유화된 자유로 소외와 분열을 조장하는 한계에서 그리스도와 인류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소명된 “빛과 소금”(마5:13)의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결국 이 사명을 위한 개인의 인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의존 관계에서 유지되며 보장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개인적 자유가 동성혼처럼 비인간적인 삶의 방법으로 사용된다면, 인권에 대한 사회적 법적인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소망 칼럼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신자는 감사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선한 일을 성취하든지, 봉사 활동을 한 후에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에, 힘든 일을 해냈을 때에, 어렵고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에 있을 때에 누구에게 그 공을 돌려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나에게 그런 일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일의 처음 과정과 끝을 주관하신 분도, 나를 여태껏 지켜주신 분도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추어진 생명과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부여받은 영생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열심과 수고의 결과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요13:24; 빌4:1)와 더불어 성도의 아름다운 별명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 사랑 받는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자 곧, 신앙의 유치한 단계를 벗어나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것이다. 감사하는 자의 삶은 언제나 밝고 명랑하다. 감사가 결여된 사람은 언제나 생활이 어둡고 침침하게 된다. 감사하는 자는 실망이나 좌절, 포기 등을 모르고 사는 것이 특징이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마귀는 불평하는 자의 아비이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킨다. 감사는 열악한 삶을 풍요한 삶으로 변화시킨다. 감사는 나쁜만 아니라 이웃의 삶까지도 변화시킨다.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감사는 고마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이라 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감사라고 하는 것이다. 감사는 훌륭한 신앙과 교양의 열매이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씨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보배이다. 모조로 불평을 함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속박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불평한 삶의 속박을 벗어나고 행복을 누리자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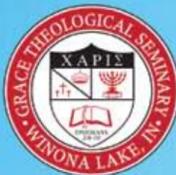
감사하는 말에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 감사의 삶에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된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성도의 모습이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삶 속에 차곡차곡 쌓인 고맙고 아름다운 기억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란다.

감사는 말씀과 기도와 함께 신앙생활의 삼대요소이다. 우리가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일상 속에서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해야 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다. 사람은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살고 행복하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현재 받은 축복을 헤아리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오늘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일의 행복도 기대할 수 없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며 기적의 씨앗이다.

nammic@hanmail.net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k Lee(이관직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라방교회)



'방학이다!'

여름 방학 시즌에 들어섰습니다. 자녀들은 신이 났는데, 왜 부모들은 방학이 부담스럽고 두려울까요?

하는 부담 때문에 부모들의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서머스쿨, SAT 학원, 영어와 수학 학원, 수영학교, 여름성경학교(VBS), 운동 캠프, 오케스트라, 수련회, 단기선교, 가족 휴가, 인턴십 프로그램 등등... 자녀들을 다양한 서머 프

로그래에 등록시키려고 부모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여름 프로그램들을 찾아내기, 등록시키기, 회비 내기, 라이드 주기, 간식 싸기, 때로는 부모가 직접 자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고,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부모들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름방학 증후군'을 앓는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방학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분명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부모들은 자녀들의 개학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름방학 시작과 함께 개인의 신앙생활도 방학 모드(mode)로 들어가는 성도들은 혹시 안 계시겠지요? 삶에는 쉬이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에 방학은 금물입니다. 다락방이 방학이라고 조금만 내

해지면 순장과 순모 그리고 순원들 모두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 내내 사역과 배움에서 손을 놓으면, 교회 중직자들 도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국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성도들이 잠시 신앙을 LA공항에 놓고 떠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면,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어도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힘듭니다.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1년 12달 365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그리고 나타내져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게 하려고, 수시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유혹합니다. 방학 기간에 잠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쉬어도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방학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마귀에게는 방학이나 휴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의 영적 전쟁에도 방학과 휴가란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26:41)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방학에도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삽시다. 기도를 쉬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집니다. 기도의 줄을 놓고 사는 신앙인은 영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기도의 줄과 함께 영적인 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삽시다. 말씀을 붙잡을 때만 예수님처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여름방학이 두려우세요? 자녀들을 '뺑뺑' 돌릴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혹시 우리들의 신

앙생활도 '뺑뺑' 돌릴 영적 계획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고 생산적인 여름을 보내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잡습니다. 한 손에는 기도, 또 한 손에는 말씀을 붙잡고 영적 훈련을 쉬지 않을 때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영적인 상승 곡선을 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은 주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 안에서 더욱더 속속한 모습으로 가을을 맞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주될 것이니라"(잠19:15).

푸/른/초/장

김상선 목사
(게이트웨이장로교회)



스티브 로페즈(Steve Lopez)라는 사람이 LA타임스에서 기자로 활동할 때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가 어느 날 LA의 다운타운을 걷고 있다가 아름다운 첼로 연주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첼로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가 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연주는 홀리스가 길에서 연주하는 첼로 연주였습니다. 그는 다가가서 홀리스가 연주하는 그 연주를 감상합니다. 그의 연주는 음악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수준급 첼로 연주였습니다. 잠시 후 연주를 마친 후에 대화가 있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Nathaniel Ayers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는 뉴욕의 음악 명문 학교, 줄리아드에서 2년 동안 음악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도 이 실화 이야기는 영화(The Soloist)화 되어 일반인에게 소개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래서 자녀가 지닌 역량을 잃고 살지 않게 됩니까?

습니다. 평소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도 능히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결국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넘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3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의 근원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도와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요:12)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성령이 자신의 삶에서 거두어지는 상황,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11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믿음의 소유, 그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자신의 내재에서 떠나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도 머리털이 다 뽑혀버린 삼손과 같이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재하는 삶이 되어야 믿음의 삶이 됩니다. 다윗이 두려

었을 때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미국에서 경부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강남 거창에 가서 학교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맡아서 운영해보니, 학교 재정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는 점점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산으로 금식기도 하러 갑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금식기도해도 확신이 서지 않고, 기쁨도 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그때 그가 금식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리하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교의 이 빚을 갚아 주지 않으시면, 제가 이제 산에 내려가서 신문사로 가겠습니다. 그것도 제일 잘 팔린다는 신문에 가서 그리고 일간지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낼 것입니다. '하나님 죽었음' 그렇게 광고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직원이 미국에서 왔으면서 그에게 편지를 건네줍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그 안에 학교 후원금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학교의 어려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액수의 후원금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그 학교 출신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 흥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 야단이 났습니까? 만군의 주재신 그 하나님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원망들이 일어났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이제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dulosforhim@gmail.com

믿음으로...

(마태복음 17장 14-20절)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스티브는 훌륭한 연주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길에서 홀리스가 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신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나다니엘을 돕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나다니엘은 그러한 스티브의 도움의 손길을 모두 거부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스티브는 나다니엘에게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너는 훌륭한 연주가야... 유명한 연주가가 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기도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마:9). 이처럼 이해하기 쉬운 관계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지금도 그 우주를 주관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그 우주와 그리고 시간을 통치하시는 그분...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쉬운 설명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설명이, 왜 이토록 어렵게 여겨지고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녀가 간절히 걸려 많은 고생을 하는 자녀를 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는 고쳐달라고 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연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만유의 주재자이신, 영광 중에 거하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 단순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고전13:13)이라는 말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를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최고의 영적 덕목인 사랑도 결국 믿음이 있어야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자녀로의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도 헛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깨우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처음 관문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을 받고 참 믿음을 얻게 되는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령님께서 거하실 만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들을 나의 삶속에서 확신시키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약시대에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용사였던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위했던 상황... 그 상황은 원수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삶속에서 더 이상 성령님이 거하시기 어려워진 그 상황, 그 상황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거하지 않게 되면 결국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실 만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 된 능력이 있는 삶이 됩니다. 자녀 된 복을 얻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거창이라는 곳에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지향하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과거에 이 학교에 정용창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한국에 전쟁이 있

미국에 테러리즘과 중동정책은 뗄 수 없는 관계

(3면에서 계속)

1972년 비행기 납치범들이 비행기로 테네시 주 오크리지의 핵시설을 들이받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었다. 켈킨스는 수년간 하나의 가능성으로 그 아이디어를 또다시 거론했을 뿐이다.

과거 테러의 미래 항방에 관한 그들의 예측을 돌아보면 낯 뜨거워진다고 했다. 50년 전에 앞으로 수십 년 사이 요즘과 같은 테러리즘이 급증하리라고 누가 예측했겠는가? 주요 사건 중 하나가 1967년의 6일 전쟁이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점령으로 이어져 팔레스타인 테러리즘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1977년에 누가 이란 혁명의 형태

를 띤 이슬람 극단주의의 등장, 레바논에서 이란의 후원을 받는 시아파 극단주의의 부상, 그리고 대규모 차량폭탄과 자폭 테러공격의 일상화가 수반되는 테러리스트 폭력의 확대를 예상했는가?

당시 10년 동안 중동 지역은 미국의 커다란 걱정거리였으며 워싱턴 정부는 갈수록 군사력에 의지해 레바논에서 미 해병대에 대한 공격에 보복하고, 이집트를 빠져나가는 납치 테러리즘을 체포하고,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공격에 대한 리비아의 지원을 저지했다.

1987년 그 당시에 2년 뒤 옛 소련의 몰락을 예견한 분석가는 거의 없었다. 그것은 훗날 세계의 정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테러리즘

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1997년 알카에다가 미국에서 선전 포고를 한 상태였지만 다음 해 그들의 공세가 극적으로 확대됐다. 결국 2001년 9·11 테러는 글로벌 테러와 전쟁으로 이어져 세계 각지에서 오늘날까지 싸움이 계속된다.

그리고 2007년 4년 뒤 아랍세계 전체를 휩쓴 봉기를 누가 예상했는가? 그것은 각국 정부에 혼란을 초래하고, 지하디스트(성전 전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시리아 내전과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올해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테러리즘이 하나의 교전 양식으로 자리 잡아 앞으로 사라지지 않

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테러가 [ts1] 증가한다는 주장은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거기에는 테러리즘 분류항목이 새로 등장하고, 세계적인 뉴스 보도가 발전하고, 지금은 비정규적인 분쟁에 테러전술의 도입이 일상화된 요인도 있다.

테러리즘이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테러 공세가 지속되는 분쟁 지역을 제외하면 그 발생 빈도는 높지 않다. 2015년 전체 테러 공격의 55% 이상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났으며, 전체 인명피해 중 74%가 이라크·아프가니스탄·나이지리아·시리아·파키스탄 5개국에서 발생했다.

테러는 여전히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인접 지역에 집중된다. 이들 지역에서 현재 일어나는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변함없이 주요 테러 위협의 근원으로

남을 것이다. 미국에 테러리즘과 중동정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테러 외적인 사건들이 테러의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위와 결과적으로 폭력사태의 촉매제가 된 6월 전쟁과 베트남전쟁, 이란 혁명,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슬람 극단주의의 부상, 옛 소련의 몰락, 아랍의 봄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의 가장 큰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테러범들은 화학 또는 생화학 무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용한다 해도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방사능 테러 사건이 한 번 있었지만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깜짝 쇼'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사태에 대한 우려는 계속된다. 테러범들이 언젠가 그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만일'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일 뿐이

라는 주장이 많다.

테러범들의 무기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테러공격 중 4분의 3 이상에 폭탄이 사용된다. 일부 폭탄은 더 정교해지고 있다. 하지만 50년 전과 다름없이 테러에 여전히 자동 또는 반자동 무기가 사용된다.

전술적 혁신으로는 자폭 테러, 다중 자폭 테러, 민간인(soft targets) 대상의 무작위 테러, 차량 돌진 테러 등이 꼽힌다. 여기에는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원거리 자원자의 협력이 반영된다. 이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테러리즘은 수직적이기보다 수평적으로 확산된 듯하다. 대량살상 무기 대신 저강도 공격이 널리 퍼졌다. 심각한 문제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현재 테러리즘에 관해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격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혼재

마태복음 13장에는 일곱가지 천국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라지 비유는 지상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교인들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라지에 비유되는 종교인들과, 좋은 씨에 비유되는 신앙인들이다. 말씀의 배경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혹독한 책망을 받고 있는데 시작된다. 책망의 이유는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신앙인이 되지 않고 외식하는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심으로 두 집단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의 유대사회에서 이 두 집

교인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혼란하기만 할뿐,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신앙 없는 종교인의 자리

신약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막강한 종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여호와 신앙에 먹칠을 하고 큰 오점을 남겼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철두철미한 신앙생활을 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매주 금식하였으며, 십일조는 어김없이 바쳤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일점일획이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 혹독한 책망을 받은 이유는 표리부동하고 위선이 가득한 그들

다 보니 생활의 변화가 없고 열매도 없다. 이들 가운데는 혹은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의무적일 뿐이다. 직분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심중팔구가 대답을 못한다. 그냥 교회에 다니기만 할 뿐,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민 교회의 대소를 떠나 속히 돌아보지 않으면, 말세의 분명한 현상을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먼저 접하는 날이 오고 말 것이다.

참된 신앙인은 누구인가?

참 신앙인은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행하는 자들이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

하나님을 위해 양보하고, 손해 보고, 희생할 줄 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이는 바로 말세에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을 찾으시겠다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을 보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을 행하게 하라.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한다. 종교인들은 그대로 종교인으로, 신앙인들은 그대로 신앙인으로 살라는 말씀인데 부정을 강한 긍정으로 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교회 속 종교인과 신앙인이 공존하는 세상

-민심의 공동체 안에서 빛됨을 연습-

단이 최고의 지위와 권력을 누림과 동시에 백성들로부터 가장 경건하고 권위 있는 지도자로 대우 받는데 반해 그들의 영적 생활은 위선과 외식으로 최악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귀족계급이었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계급으로서 역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들 두 집단이 종교인의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었을 뿐, 속에는 부정부패와 위선과 외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돌이 싸잡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이다. 오늘날 이민교회 안에도 종교인들과 신앙인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 둘은 서로가 조화되지도 않고, 또 서로를 용납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교회 안에 중

의 생활 때문이었다. 즉,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형식과 외식에 얽매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앙이 없어도 종교인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오늘날, 이민교회와 이민사회 안에서 이러한 종교인들을 수없이 많이 발견하게 된다.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이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임으로는 신앙고백을 곧 잘한다.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아서 교회의 각종 요직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따라서 예수 믿는 즐거움이나, 구원받은 감격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갔다 한다. 물론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눈물 흘리는 회개도 없다.

생활의 변화와 열매

신앙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까지 믿음이 성장한 신자들이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가장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세상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다.

참 주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 하지 않으며, 사는 것과 죽는 것에 그다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생사가 주 안에서 동일하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는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희생한다.

석해야만 하는 무서운 말씀이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주일이면 교회로 나오나.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 종교적인 의무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신앙 때문인가? 심일조를 하나님께 바친다. 왜 바치는가? 종교적인 의무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축복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일조를 바치는 것이다.

(6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제가 과거에 좋아했던 사랑과 영혼, ET, 스타워즈 등의 영화나 음악이 어떤 목사님이 그것은 뉴에이지 영화와 음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뉴에이지(New Age)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산타바바라에서 김

A: 뉴에이지 운동은 새시대 운동 혹은 새세대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운동이기에 그 정체를 바로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사회에서 영화와 서적, 음악 등을 통해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히 요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연재하고자 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근원은 1875년 뉴욕에서 러시아 여인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에 의하여 창설된 신지학(神智學)협회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들 사이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본 명제입니다. 이 협회의 3대째 회장인 Alice Bailey(1880-194년)는 영국출신의 여자로 이운동의 실질적인 기초를 쌓았고 그들의 대체사장으로 간주합니다. 그녀는 영매였는데 티벳사람 Djawal Khul 소위 "지혜의 주인"으로 지쳐하는 악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 그것이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뉴에이지

(1) 뉴에이지운동은 현대과학, 점성술, 자연숭배, 영지주의, 동양신비주의의 혼합 종교체제

운동의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현대과학, 점성술, 자연숭배, 영지주의, 동양의 신비주의들이 합쳐진 혼합 종교 체제로서 특히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힌두교의 구원관은 극기와 명상을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업의 수레바퀴로부터 해방되어 브라만으로 환생하면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명상과 수련을 통하여 이를 개발하면 인간은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찾는다면 뉴에이지는 그 피조물인 인간과 자연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자만을 부추기며 인간은 신적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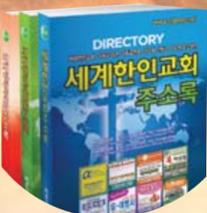
"빛의소리"의 김형린이란 분이 과거 국민일보에 연재한 글에 의하면 뉴에이지의 근본정신은 "예수님 없이도 이 세상은 낙원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배후에 깔아 놓은 사탄의 교묘하고 사악한 전략입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은 반 성경적이며 적그리스도적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을 비판한 김찬근 목사는 "이 운동의 주동자들은 인간의 최고의 목표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다가오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고 긴장 없는 유토피아의 세계로 도망함을 인하여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운동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장래의 번영과 성공을 약속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아도 해방감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사회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영화, 비디오, 만화, 게임 등에 우리 자녀들이 심취해있는데 흥행에 크게 성공한 ET나 스타워즈, 사랑과영혼 등은 뉴에이지 계열에 속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에게 질문하는 것, 주문으로 영을 불러내는 초혼, 마술사 마녀주문 부적, 마법의 칼등이 어린 세대의 정신세계를 마구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대개 반성경적이며 악령적이며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8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8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자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이명>)를 수록한다.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화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5) 리스팅 접수마감 2017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7년 9월 30일

유료 광고 안내

Table with columns for ad type (e.g., full page, half page), size, and price. Includes rates for front and back covers, and listing ads.

무료리스팅신청서

Form for free listing application with fields for church name, address, phone, fax, and email.

NY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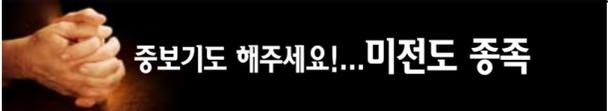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집시(GYPSIES)



인도에 거주하는 5개의 집시 종족들의 통합 프로젝트 "집시" 라는 이름은 화려한 행렬을 지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행상인들과 점성술자들의 방랑 무리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세계 집시들의 많은 수가 인도와 중동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정확한 묘사는 아니다.

인도에 있는 집시들의 가장 큰 집단은 람바디(또는 고르마티) 집시이며 그 밖에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종족으로는 타밀 유목민, 인도계 집시, 칸자리, 바이가족이 있다. 이러한 집시 종족들은 인도 전역에 널리 퍼져 있지만 그들 대부

분은 편잡과 마디아 프라데시, 우타르 프라데시, 마드라스, 오리사, 안드라 프라데시 등의 지역에 집중되었다. 아르하가르 집시도 이웃 파키스탄에서 살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다른 집시들 뿐만 아니라 이 종족들도 언어적으로 관련되었다. 모든 집시 언어는 북부 인도-아리안 어계에 속한다. 수백년 전 집시가 인도에서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언어(로마니아어)의 각기 다른 방언이 생겨났다. 각 방언들은 어떤 집단이 정착한 그 지역에 따라 분류됐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인도 집시들은 올리브 색의 피부와 검은 머리결, 갈색의 눈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중세 인도의 라즈푸트족의 후손들이라고 믿고 있다. 이들은 무슬림 침략자에 의해 자기들의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다. 그

들은 무슬림 군대를 위해 보급품 운반자나 무기제조자로 이용됐다. 라즈푸트족은 인도 전역과 인도 바깥으로 떠돌아다녔으며 가난하고 무시를 받으며 오해를 받는 민족이 됐다. 그들에게 유일한 가치 있는 것은 그들 전문직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었다. 오늘날 그들의 후손인 집시들은 인도 전역에 널리 퍼져있으며, 자기들의 주변 공동체와 사회적으로 다소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신비로운 생활 방식을 유지해왔다.

인도 집시들은 대개 하나 이상의 직업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별도의 기술을 사용해 자신들의 수입을 보충한다. 어떤 사람들은 빗자루, 철제도구, 바늘 등의 물건을 만드는 것을 전문으로 하며, 돌로 도구를 고치거나 작업을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집시들은 힌두교도로서 생계를 위해서 일할 필요는 없다고 믿으며 "종교적 구걸"을 해서 수입을 번다. 그들은 특정한 신의 이름으로 구걸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특별한 화장을 한다. 곡예사, 마술사, 아바위꾼, 만담가, 점쟁이 등으로 또 활동을 하거나 대장장이로 일하기도 한다.

어떤 부족들은 문신기술을 개발해내기도 했다. 집시들은 생계를 위해 자기들이 처한 사회의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에 적응해 직업이나 활동을 바꾸기도 할 것이다. 어떤 집시가 그 지역의 필요에 적응할 수 없을 때는 정착해서 눌러 앉아버리며 이렇게 정착한 집시들 중 일부는 현재 농부로서 살고 있다.

어떤 집시들은 일년 내내 떠돌아다니지만, 또 다른 집시들은 그해의 일부 기간에만 떠돌다가 주기적으로 자신의 집이 있는 캠프로 돌아온다. 또 일부는 그 지역 사람들과 비슷한 집에서 살지만 다수는 짐마차나 소달구지를 주거나 삼으며 이동식 가족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길에서 방랑하거나 말을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런 "사치"를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전혀적으로, 집시들은 매우 불결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공중위생은 그다지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인도 집시들은 아이들이 태어나 "어머니 대지의 무릎"으로 들어온다고 믿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들은 양탄자나 땅바닥에

누워서 아기를 낳는다. 아이들은 종종 잘 돌아지지 않으며 머리카락은 길고 신발은 거의 신지 않는다.

신앙
대부분의 인도 집시들은 힌두교도다. 여러 가지 힌두교 관습을 자신들의 신앙과 결합했지만, 2개 종족은 무슬림이다. 아르하가르 집시들은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따른다. 인도 집시들은 오래 전의 무슬림 침략자들의 관습을 단순히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

집시들은 매우 미신적인 사람들로써 많은 금기사항들이 그들의 종교 신앙과 혼합되었다. 힌두 집시들 가운데 있는 한 가지 금기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남자 앞에서 빗거나 길게 늘어뜨리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금기사항은 여자는 앉아서 남자 앞을 지나가서는 안되며 그의 뒤로 지나가야 한다.

집시들은 심지어 말을 아끼지 않는 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순결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과거 매춘을 한 일부 여자들은 생

매장 당했다. 미혼 여자들은 아직도 도시로 가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낯선 사람과 앉아 있는 동안에 대개는 머리와 발 위에 베일을 쓴다.

필요로 하는 것들
많은 집시들은 가난하게 살아간다. 대개 집시들이 소유한 유일한 옷은 그의 등에 짊어진 것이다. 비위생적인 생활양식은 그들에게 많은 물질적 필요를 만들었다. 보건과 영양, 교육의 질은 열악하다. 가족이 항상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집시들은 영적으로 궁핍하다는 것이다. 대다수에게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독교 자원이 없으며, 단 2개의 부족만이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려면 기독교방송과 성경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칠 기독교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당국, 동성결혼 반대 글 올렸다고 행정 제재

미국 미시간주 이스트랜싱 시청은 지난 4월 이 도시에 거주하는 농장주 스티븐 테니스씨에게 농산물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테니스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성경적 결합"이라는 글을 공공연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시당국은 "이는 2015년 동성간 결혼은 연방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에 합치한다는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지금까지 미국에선 동성애자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며 제재를 가한 사례는 있지만, 단순한 동성결혼 반대 발언을 빌미 삼아 당사자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 경우는 없었다.

테니스씨는 즉각 법원에 농산물거래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미국 동성에 합법화 운동의 '대부(代父)'격인 팀 길이가 개입하고 나섰다. 길은 시당국을 두둔하며 "종교적 이유로 동성애를 저지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이스트랜싱시의 행정처분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대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길은 1980년대 중반 소프트웨어기업인 퀵크사를 설립해 억만장자 대열에 오른 게이로, 미국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운동의 강력한 재정 후원자다. LGBT를 옹호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무려 4억22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달 30일 이스트랜싱 시당국의 행정처분을 보도하면서 동성에 옹호자들이 '전혀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애자 차별금지 법제화 등에 '울인'했던 이들이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동성에 반대자에 대한 응징·보복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LGBT 운동가들이 겨냥하고 있는 주요 타깃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테네시 버지니아 등 미국 남부 벨트다. 주민 대다수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이들 주는 종교적인 이유로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동성결혼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곳들이다. 대표적인 시도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화장실법' 제정을 무산시키기 위한 법적 소송이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출생 증명서상 성별에 따라야 한다는 이 법 취지가 '차별'과 '편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길은 2012년 미국 예일대학에서 강연에 나섰다. 한 대학생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50년 전만해도 우리 편이 아무도 없었지만, 미래엔 모든 사람이 우리

성경에 귀 기울이는 마을 탑10 공개

미국에서 가장 성경에 귀 기울이는 마을은 어디일까. 최근 교회 마케팅으로 유명한 바나그룹이 '2017 가장 성경에 귀 기울이는 미국의 마을(America's Most Bible-Minded Cities 2017)' 연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나그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영예의 1위는 테네시 주의 채터누가 마을이 차지했다. 2년 연속 1위에 오른 이 마을의 주민들은 50%가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미국 남동부의 앨라배마 주에 있는 버밍햄과 애니스트, 터스컬루사가 49% 공동 2위권이었다. 2015년에는 1등이었던 곳들이다. 미국 서남부에 있는 로어노크와 버지니아 주 중부에 위치한 린치버그는 48%로 공동 3위권을 기록했다.

테네시 주의 트라이시티(48%)와 루이지애나 주 슈리보포트(47%),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46%)과 미주리 주의 스프링필드(46%)가 그 뒤를 이으며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

바나그룹은 131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는지'와 '성경을 얼마나 믿는지' 등을 인터뷰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의 마을과 교회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바나그룹은 지역간 성경에 대한 저항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바나그룹은 10년 동안 미국 성인 7만6505명의 인터뷰 자료를 기초로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바나그룹은 가장 성경에 귀 기울이지 않는 도시의 순위도 공개했다.

최악의 마을은 뉴욕에 있는 올버니, 스키넥터디, 트로이 등이었다. 이들 마을의 주민들은 고작 10%만 성경에 귀를 기울인다고 대답했다.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과 뉴햄프셔 주 맨체스터가 11%로 뒤를 이었다.



"식사기도, 아멘 인돼" 스웨덴 정부, 유치원에 통보

구세군이 운영하는 스웨덴의 한 유치원에서 식사 기도와 함께 '아멘(Amen)'이라고 말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크리스천데일리 1일 보도했다.

매체는 스웨덴 국영방송 STV를 인용해 스웨덴 북부 도시 우메오 지역의 A유치원이 정부 조사를 받은 끝에 스웨덴 교육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스웨덴 교육법은 아이들에게 식사 전 기도를 하거나 수업 도중 고백을 하도록 하는 식의 종교적 활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A유치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A유치원 브릿 마리에 마르텐손 원장은 그러나 STV와의 인터뷰에서 "일부러 법을 어길 생각은 없었다"면서 "난 단지 식사기도가 교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 "공부 시간 책상에 앉은 아이들이 고백을 할 수 없으니 식사 시간이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했다"면서 "난 정부와 법을 다르게 해석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 정부는 아울러 A유치원의 '성경 간식시간(Bible Snacktimes)'을 금지했다. 이 시간에 A유치원 교사와 아이들은 성경에 대해 각종 토론을 했다고 한다.

스웨덴 정부의 이번 조치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유치원에도 같은 법이 적용되는 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교실'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초등학교부터는 교육법 적용이 명확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교실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지난해에도 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일부 크리스마스 캐롤을 학교에서 부르지 못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해 바스트라 고틀란드 카운티 아말 지역의 몇몇 학교에서는 '이제 1000개의 촛불을 밝히자(Now Light 1,000 Christmas Lights)' 캐롤의 가사에서 기독교적 색채가 있는 가사를 바꿔 부르도록 했다. 캐롤에는 원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빛' 등의 가사가 있는데 학교 당국에 마음대로 가사를 바꿨다는 것이다.

노래의 작사·작곡가는 당시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는 전통이 있다"면서 "교육 당국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의 자녀를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우리 전통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아 아들 이야기는 진짜" ...이집트 미라 DNA분석

노아의 아들인 함의 자손을 다룬 성서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크리스천포스트는 브레이크잉이스라엘 뉴스를 인용하며 "고대 이집트인들의 계보를 해독한 결과를 담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의 연구는 창세기에 묘사된 첫 번째 이집트 왕조가 노아의 아들 함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고대 이집트인의 미라는 이집트 중부 아부시르 엘멜라크(Abusir-el Meleq)에서 발견됐다. 독일의 연구자들은 미라에서 151개 DNA 샘플을 추출해 고대



이집트인들의 계보를 분석했다.

크리스천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연구 결과는 고대 이집트 미라의 DNA가 창세기 10장 5-6절이 사실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

창세기 10장 5-6절에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인요라고 돼있다. 함의 아들 미스라임은 이집트에 정착했다.'

DNA 조사 결과 이들은 기원전 1388년에서 426년 사이 살았던 이집트인들로 추정됐다. 이들은 고대 가나안 지역(현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포함 레반트)의 고대인과 지금의 터키 지역의 신석기인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깝다.

연구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DNA 샘플이 고대 근동 지역(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이나 유럽인들과 가깝다"면서 "사하라 이남 지역 사람들과 가까운 현대 이집트인들의 샘플과는 매우 다른 것이 특징"이라고 기록했다.

브레이크잉이스라엘 뉴스는 "노아의 아들 함과 그의 자손들이 홍수 이후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건너와 이집트 왕조를 세웠다는 고고학자 데이비드 홀의 주장을 입증한다"면서 이번 연구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IS, 자폭테러범들에게 천국행 여권발급 "처녀 72명 선물"

지난 27일 영국 데일리메일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천국행 여권'을 발급해 자살폭탄테러를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천국행 여권'은 최근 시리아방위군에 의해 해방된 라카 비둘리 지역에서 발견됐다. IS 수뇌부는 이런 여권을 발급해 자폭 폭탄 테러범들에게 '순교자'가 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수니파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집단인 '이슬람국가(IS)'가 황당한 '천국행(行) 여권'을 발급해 주면서 자살폭탄테러를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데일리메일 등은 이런 여권 사본이 최근 시리아방위군에 의해 해방된 시리아 라카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초록색 여권 앞면에는 영어와 아랍어로 '알라만이 유일신,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라는 문구와 함께 '파라다이스(천국)으로 향한 여권'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여권 안에는 개인의 정보가 들어 있지 않다. 대신 아랍어로 '이 여권 소지자는 천국만 갈 수 있고 지옥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IS 뿐만 아니라 이슬람 테러단체들은 순교자가 되면 천국에서 처녀 72명의 대접을 받는다며 자폭테러를 유혹해왔다. 무관심 신앙심을 가진 남자가 순교하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게 된다는 구절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테러를 조장하기 위해 무관 구절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다 쏟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살아있는 순교자 안이 속 선생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바쳐 드리기를 소원하여 일본 신사

참배의 총칼 앞에 순교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이 소원이 좌절되자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목사인 나도 가끔씩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 새벽기도, 예배인도, 그리고 설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기 못하고 목사로서의 의무와 외식에 빠져서 행할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민하고 있다.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어지면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예배를 안 드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 버리면 찬양대 지휘자가 찬양을 지휘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고, 반주자는 찬송가 반주를 하면서도 자기는 찬송을 부르지 않게 된다.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이어야 하고, 예배를 인도하기 이전에 한 사람의 겸손한 예배자이어야 하며, 설교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듣고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데, 자칫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어 신령과 진정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므로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오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다.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

빛을 비추기 전에 먼저 빛이 되어야 한다. 그 빛이 어디서 아름답게 드러날 것인가? 어디서 빛 됨을 준비할 것인가? 참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어디서 풍성하게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 힘 있게 비추일 것인가? 그렇게 힘있게 비추는 빛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인가? 종교인과 신앙인이 혼재된 교회에서 종교인의 형식주의를 내어버리고 참되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준비될 때, 빛이 됨으로, 그 빛 된 신앙인이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안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30. 박창호(1877-?)

박창호는 1877년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1905년에 기혼자였지만 단신으로 도미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레드랜즈에 정착하였다. 레드랜즈는 붉은 점토 흙에서 유래된 도시 이름이다. 그가 도착하기 5년 전 1900년 현재 4,800여 명이 거주하였고, 그가 도착한 후 5년이 되던 1910년에는 10500명이 거주한 도시다. 이곳은 1910년까지 꿀 농사로 유명했다.

이경의와 전효택에 이어 북미자지 한인야소교회 제3대 목회자가 된다. 그는 1911년 말 오픈랜드로 이



북미자지 한인야소교회

1906년 레드랜즈에 한인교회가 백인교회인 제일감리교회의 도움으로 세워진다. 본 백인 교회는 1887년 11월에 조직된 후 4년이 되던 1891년에 흑인 노동자를 위한 교회를 세웠고, 1900년 초 스페인 노동자를 위한 교회와 한국인 노동자를 위한 유니온한인교회 그리고 대학생을 위한 대학연합감리교회를 세운 바 있었다. 본 교회는 이른바 '선교하는 교회'였다.

북미자지 한인야소교회는 백인교회인 제일감리교회가 세운 다섯 번째 교회가 된다. 본 한인교회는 한인 이주자들에게는 '북미자지 한인야소교회' (北美地韓人耶穌教會, 예배당 오른쪽 기둥에 부착해 있다)라고 불렀고, 영어권에는 예배당 입구 위에 걸려있는 대로 '한인감리교 선교회' (Korean M.E. Mission)로 알려졌다.

북미자지 한인야소교회가 세워지던 1906년부터 1910년까지 등록 교인은 21명이었다.

박창호는 이경의, 전효택 그리고 정지용과 더불어 백인교회인 제일감리교회에서 학습을 받은 후 1907년 12월 8일 이데이비, 전효택 그리고 전지영 등과 함께 본 교회에서 F.M. 라커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30세 때다. 그리고 2년 후인 1909년 11월에 박창호는

레드랜즈 제일감리교회 (1903-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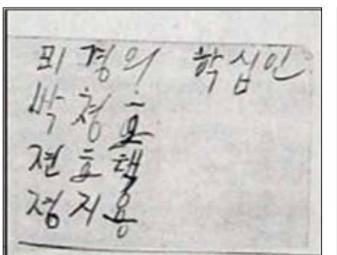
한인감리교회가 있었던 자리에는 잡초만 우거져 있다.

1909년-1910년, 레드랜즈 전화번호부, 아래에 한인감리교회의 주소가 보인다.

1905년 기혼자지만 단신 도미, 북미자지한인야소교회 제3대 목회자로 2년 사역 교회 섬김, 항일운동 계속하다 1917년 귀국...미국교회가 한국에 이명증서 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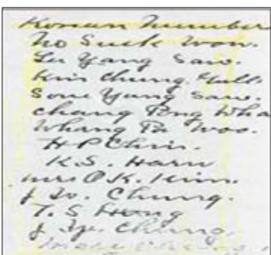
북미자지한인야소교회



학습인 명단, 두 번째가 박창호다.



업랜드 제일장로교회 한인 주일학교 가운데가 교사인 스트윅트 부인



1909년 12월 한인교인명단

주하기 전까지 약 2년간 목회한 것으로 보인다.

예배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1909년 12월 4백여 불의 건축헌금을 모금하였고, 1910년에 예배당 건

박창호는 평신도 자비량 목회자였다. 1910년 그는 18명의 노동자를 관리하면서 큰 농사를 경영하였다. 2년 전이었던 1908년 그는 레드랜즈에서 이부경과 전효택과

애와 환란 상부 그리고 항일운동에 가담했다. 그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다. 1907년 11월, 최병찬은 동포후의를 감사한 광고를 아래와 같이 실었다: "본인이 지식이 없는

다. 1911년 4월, 그는 레드랜즈 국민회 지부를 위하여 5불을 헌금하였음에서 그가 목사가 된 후에도 국민회에 가입하여 항일운동에 적

극적이었음을 알게 된다.

업랜드

박창호는 1911년 인근 업랜드로 이주하였다. 이곳은 레드랜즈에서 서쪽으로 3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다. 그가 이주하기 전 해인 1910년 북미 국민회 대의원회가 개최될 정도로 업랜드에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였다.

이곳은 일찍이 메리 E. 스트윅트 부인이 자신의 오렌지 농장에서 노동하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1907년 3월 한인장로교회를 설립하였고, 나성의 방화중 전도사의 방문으로 한국어 예배를 드렸다.

부인은 백인교회인 제일장로교회에서 한인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직접 지도하고 있었음을 필자가 수집한 빛바랜 흑백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인은 한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1907년 이후 대부분 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점에서 위의 주일학교가 전도의 모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1년 8월 예배당을 구입하고 그 해 11월에 헌당식을 거행했을 때 교인 수는 약 40명이었고, 이때 박창호가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업랜드에 이주한 박창호의 하나님 사랑과 동포 사랑은 클레아몬트 학생 양성소 겸 예배당 건축비로 5불을 헌금했다는 1911년 11월 15일 자의 신한민보 기사에서 볼 수 있다. 그 해 9월 업랜드에서 서쪽으로 4마일 떨어진 클레아몬트에 한인학생 양성소 겸 예배당이 건축되었고, 그 준공 낙성식이 10월에 거행됐다.

귀국

이후 박창호는 중기주 디뉴바로 이주한다. 그는 1917년 디뉴바 예배당 건축헌금으로 13불을 헌금하는 등 교회를 섬기는 한편 동족 사랑도 계속되어 1915년 국민회 디

뉴바 지방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그 해 9월 국치일 기념식에서 취지 설명을 하였다. 12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1917년 3월 5일, 그가 퍼시픽 선편으로 귀국하였다는 보도를 읽게 된다. 레드랜즈 제일감리교회는 7월 21일에 한국으로 박창호에 대한 이명증서를 보내고 그의 이름을 삭제했다. 이에서 미국교회와 한국교회가 교인 이명에 대한 협약을 추측할 수 있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h4>뉴욕셋미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0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오후 08:00 한국학교: 오전 9:30(월-토) Tel: (516)520-2004, nycgod@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hemane.org</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부: 오후 08:00 금요헌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yang.org</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예배: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월-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cb.org</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역)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201)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chungkila@yahoo.com</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성경부: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la@yahoo.com</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1,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주요성경부: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672-1150 Fax: (718)672-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순복음안도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8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och.com</p>	<h4>뉴욕초대교회</h4> <p>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영양예배: 오후 1:30 최요성경부: 오전 10:00 수요성경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cdcchurch.com/</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h4>리빙스턴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부: 오후 1:30 주일성경부: 오후 12:30 주일성경부: 오후 11:30 수요 영양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h4>주미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성경부: 오후 5:00 영양모임: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qccdc.org</p>	<h4>퀸즈한인교회</h4> <p>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30 NCF예배: 오후 7:0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hny.org</p>			
<h2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h4>뱅크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영역) 금요성경부: 매일 새벽 7:30 금요헌양: 오후 7:30 www.pccv.org Tel: (804)584-5780, Fax: (8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새소망교회</h4> <p>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AI-3A0 PAULO-SP-BRASIL</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월)기도회: 아침 7:40 일,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역)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h4> <p>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인어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jkn@han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역)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성경도 신앙 (34) 청교도의 가정생활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1)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신앙적 공동체를 완성해가는 장이다

청교도 목사 리처드 심스(Richard Sibbs)와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는 가정을 작은 교회로 묘사했다. 교회생활을 하듯이 가정의 분위기도 동일하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결심이 그들에게 있었다. 윌리엄 가우지는 가정을 “꿀이 저장되는 교회와 국가의 신학교이며 다스림과 복종의 제일 원리와 근본을 학습하는 곳”이라고 이해함으로써, 신학교와 학교로서의 가정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나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이 가정인 동시에 그것은 기쁨과 자원함으로 다스리고 복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분명한 가정의 의의가 그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는 “기독교 가정은 교회요, 하나님을 더욱 잘 경배하고 섬기기 위하여 조직된 기독교인들의 사회”라고 말함으로 가정과 교회의 의미를 통화시키면서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청교도들이 가정을 단순한 사회 구성의 한 작은 단위로만 본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공동체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면서 서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지닌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지도자들이 외치는 설교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내용은 초기 청교도들의 가정에 깊숙이 스며들었고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신앙 공동체의 정으로서의 가정이 초기 청교도 시대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말씀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가정 윤리는 말씀에 기초한 현상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신 문화적인 명령(창1:28)을 실현하는 장소로서의 가정을 재현 하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곳으로 가정을 이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교도

들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신앙의 모든 내용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교회에 오기도 전에 이미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잘 듣고 오기 때문에 교회 교육은 효과적인 극대치를 이룰 수 있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학교이며, 필요한 모든 덕목을 훈련하는 실습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배우며, 모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터전으로서 가정을 이해했다. 이것이 우리가 청교도 신앙에서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이요 열매라고 할 수 있겠다.

2) 청교도에게 있어 가정은 주안에서의 안식과 복을 유지하는 공동체이다

청교도들은 안식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했다. 리처드 심스(Richard Sibbs)는 경건한 사람처럼 밭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면서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써 온 가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를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가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19:9)”라고 하시고, 사도행전 16장 33, 34절에도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라고 말씀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그래서 가정을 집이나 주택(house)의 개념이 아니라 가정(family)의 개념으로서 이해하며 바로 그곳이 따뜻함과 안식이 스며드는 곳으로 이해했다.

가정의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해야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귀는 지금도 이런 부분을 공격함으로써 성도들의 가정으로부터 행복과 안식과 따뜻함을 빼앗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일에 부부가 늘 싸운다면 자녀도 부지중에 폭력을 배우고 부부의 욕설로부터 안식의 장소를 상실

할 위험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사회의 도덕 윤리의 뼈대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배우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질서와 행복이 있는 가정은 어떤 공동체에서도 동일한 가치를 창출하지만, 가정에 행복과 질서가 없다면 그 가정은 타락한 사회의 흐름에 휩쓸리고 만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장 건강한 가정을 통해 가장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주지했다.

3) 서로 돕고 위로하기 위함이다

실낙원(Paradise Lost)의 저자인 존 밀턴(John Milton)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음욕을 알기 전에 하와를 배필로 주셨고 그 후에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으므로 결혼의 주

요한 목적은 음욕을 해소하거나 자녀 번식이 아니라 먼저는 서로 간에 협력하는데 있다”고 했다.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는 “결혼의 목적에는 서로간의 위로와 협력을 위한 가장 친밀한 교제가 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창2:24)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창2:18) 이런 서로의 협력체는 인류의 생육뿐만 아니라 현재적 삶의 모든 즐거움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상호적이며 모든 본질적이고 원리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도 같은 입장이다. 알렉산더 니콜라스(Alexander Nichoos)는 “결혼과 아내 삼는 일에 대한 강연(Discourse of Marriage and Wiving)”이라는 책에서 “여러분은 결혼을 통해서 우정과 위로를 주는 친구와 하나 될 뿐 아니라 기쁨을 주는 동반자와 연합한다”고 함으로써 상호 위로를 얻도록 연합해야 함을 밝혔다.

존 코튼(John Cotton)도 결혼제도가 자녀를 생산하는 것으로 단지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건강하고 견고한 가정을 세우는 것을 목적하였다.

청교도들은 결혼의 목적을 서로 돕는 것과 서로 간에 의무에 충실할 것을 주장했다. 남편과 아내는 상호간의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가정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청교도들이 작성한 법정 기록에 의하면, 매사추세츠의 제임스 해리스(James Harris)라는 사람은 가족을 돌보지 않고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도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 일로 법원에 소환되어 소양의 벌금형과 아내에게 선행을 베풀라는 명령을 받았다.

윌리엄 워터스(William Waters)라는 사람은 아내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 난방에 필요한 장치를 공급하지 않다가 이웃 사람들에게 의해 고소되었는데, 법원은 그에게 아내의 필요를 채우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명하였다. 이와 같이 청교도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돕고 의지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함으로써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주어진 영역 안에서 충실하게 일함으로써 가정을 하나님을 위한 장소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4)성적인 죄에 대한 예방의 차원을 위함이다

가)당시의 배경

뉴잉글랜드의 청교도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였다. 당시의 영국보다 낮은 비율이지만 법정 기록에 의하면 혼외정사, 자위행위, 음행, 간음, 동성연애, 수간, 혼전 임신, 종과 종 사이의 강간, 종과 주인 사이의 음행 등이 성행했다. 뉴잉글랜드에서 성범죄가 빈번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성의 불균형 때문이었다. 초기 정착자 가운데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 또는 가족의 이민을 준비하기 위해 홀로 신대륙에 도착한 남성들이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성범죄가 많았다.

또한 신대륙으로 오는 여비를 마련하거나 직업교육을 받기 위한 구실로 일정기간 주인과 동거하기로 계약한 종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결혼할 때에 주인의 허락 하에 결혼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주인들이 결혼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은 결혼으로 인해 분가하게 되면 노동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결혼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해졌던 것이 성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하늘에 귀를 대고

내 인생의 여정을 가다가 진정 나를 만나는 날이 있다. 하늘에 귀를 대고 하나님과 관통하는 때이다. 그것은 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에도 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넘어 내 생각이 끝나는 자리이다. 그럴 때 나는 내게서 일어나는 감사와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눈을 감아버린다. 그렇다. 삶이란 어쩌면 소통하는 실력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인내이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만 스승이 나타나고 몸이 저절로 चु침치며 마음 안에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풀어내지지 않을까.

내 핸드폰을 열면 제일 먼저 바탕화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라는 글이 뜬다. 그 때문에 요즘은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고 있나 자주 돌아보게 된다. 인생을 살면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 뭐냐? 저마다 추구하는 삶이 다르겠지만 나는 하와이 친정에 다니러 가면 정처 없이 앉아서 파란 바다를 바라보곤 한다. 그리고 저 바다처럼 사는 인생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바다는 언제 찾아야 보아도 늙지 않고 배려도 없는 그저 파란 본연의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바다 속에 무궁무진한 보화들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온갖 쓰레기나 오물을 던져도 흔적도 없이 다 흡수해주는 바다... 나는 그 바다를 보면서 바다로 오신 주님을 만난다.

그렇다. 하늘에 귀를 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는 바다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 마치 흙의 먼지로 만든 연약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거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었듯이 말이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집사님 내외분은 중국 땅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바다처럼 품고 자신의 이름조차 ‘바다’로 바꾸고 그 땅으로 떠났다.

요즘을 사는 거의 많은 사람들은 분주병에 걸려 있는 것 같다. 매일 매일의 삶에 쫓겨서 사는 그들의 소원은 한 번 실컷 자보는 거라고... 아무 일 안하고 그냥 푸-욱 쉬어 보는 거라고... 나이가 들수록 쌓은 경륜을 갖고 더 많이 풀어주고 더 너그러워 진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오히려 더 많은 짐작의 끈들로 얽히고 얽혀서 마음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 그래서 잠 잘 시간도 없고 지긋이 앉아 밥 먹을 시간도 없다는 푸념을 하고 산다.

그러나 하늘에 귀를 대고 사는 위대한 사람들. 그들은 땅의 잡다한 소리에 마음을 쓰고 머리를 써서 자신의 먹고사는 일만이 유일한 물음기 아닌 바쁘고 여유 없는 삶 가운데서도 영혼을 살리는 일로 마음을 쓰고 몸을 쓰는 삶을 살리라.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법’이 난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래서 요즘같이 주위에 맘 아프고 몸 아픈 이들이 많은 때엔 더욱이 그들에게 신중하고 소중하게 관심하고 전심으로 다가가 주는 삶이 귀하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귀를 대고 하늘의 무궁무진한 신령한 것들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셨기에 이 첫째 되는 것이 없으면 그 다음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종이 아니겠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원리이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곧 삶의 능력이다.

그렇다. 내 부모님은 나를 낳으신 것으로 그들의 하실 일을 다 하셨다. 나머지는 내 인생이다.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나의 영혼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 가는 작업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더 쉬워지고 더 맛나게 되리라. 그래서 아 주님! 벌써 다 주셨군요! 라는 감탄과 감격을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처럼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라크마이고 하늘에 귀를 대고 사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

changsamo1020@gmail.com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4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7년 10월 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석경 저/구장

광야의 소리, 윤종하
성서유니온

나는 아메리카의 한국인입니다
김준자 역/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감사 플러스 긍정 플러스
이영훈 역/아름다운 동행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 구입처), 로고스 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목장일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목양으로의 예비적 상황은 어릴 때에 토끼 한 쌍을 기르면서 씹이든 것 같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버지는 토끼 한 쌍을 사다 주셨다. 부드럽고 새하얀 털. 두 명하고 빨간 눈동자에 어린 내 마음을 다 빼앗겼다. 얼마 후에는 셋 노란 병아리가 생겼다. 종 종 종...

사람을 잘 따르는 병아리는 장난감처럼 귀여웠다. 또 십자매 한 쌍을 들여오셨다. 모이와 물을 주고, 저녁시간에 우리에게 가두는 일은 내 책임이었다. 또 식구가 늘어났다. 책상머리에 송사리와 올챙이가 물병 안에서 놀고 있었다. 그 옆엔 투명한 유리병 속에 양파가 뿌리

를 내리고 있었다. 살아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생명이 무엇인지 어렵푸리 알 것 같았다.

새끼 염소가 새 식구로 들어왔다. 집에 오는 날부터 계속 울었다. 이제 막 염마 품에서 떠나온 것 같았다. 그 울음소리는 언제나 나를

애처롭게 했다. 불쌍한 생각에 늘 곁에 있어 주었다. 잠깐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마구 울어 재웠다. 혼자 있는 것을 싫어했다. 아침에 풀이 넉넉한 곳에 묶어 두고 해질녘에 데리러 가곤 했었다. 하루는 실컷 놀고 여독해서 집에 갔는데 염소를 데리고 오는 것을 깜빡 잊어 버렸다. 부리나게 달려갔다. 무서워서 얼마나 울었던지 목이 다 쉰 것 같았다. 황송하고 미안해서 그날은 품에 안고 집으로 왔다.

집에 와셔도 자기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홀로 있기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할 수 없어 우리에 들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몰래 빠져 나오려 하면 금세 깨어 또 울었다. 별 도리가 없었다. 결국 그날 밤은 식구들 몰래 내 방에서 함께 지냈다. 별 사고 없이 지나줘서 다행이었다. 짐승들이

좋아서... 생명이 사랑스러워서 아름다운 목장을 그리며 청소년기를 살았다.

오랜 세월이 흘러 송파에서 개척 교회를 시작한 후 목사로 임직을 받았다. 신임 목사가 되어 첫 번째 목회도회를 마쳤다. 이제 홀로 주님을 대면하는 개인 기도시간이었다. 감동한 밤이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밝아졌다. 동시에 내 어릴 때의 꿈들이 한 칸 한 칸 영화처럼 지나갔다. 그리고 물었다. '너 슈바이처 되고 싶었지? 너 목장하고 싶었지? 이제 눈을 들어 보라!' 끝없이 넓은 초장이 펼쳐졌다. 그리고 수많은 양떼와 소떼들로 가득 차 있는 목장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사하고 싶지 않아 18년을 피했던 터라 염치없이 묵묵부답하고

있을 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꿈을 승화시켜 주님의 양무리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애 다 바쳐 신실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어릴 때 모든 환경을 예비해주셨던 자상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되 몇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시편 78:70-72).

jkym47@gmail.com

“성경에 근거한 결단 요구된다!”

UMC한인총회 긴급모임, “한인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주제

인간의 성문제(Human Sexuality)와 관련해 연합감리교회(UMC) 교단의 변화에 대한 여러 예측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총회장: 김광태 목사)가 “한인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6월 26-28일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긴급모임을 가졌다.

UMC는 2019년 2월 특별총회에서 Way Forward Commission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통해 동성애 관련 입장을 결정하고, 2020년 5월 정기 교단총회에서 교단구조 개편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태 총회장은 “이런 변화의 시기에 교회나 목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결단, 하나님 나라와 예수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선하는 선택,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학순 목사(총회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사무총장)는 교단 동향에 대해 “총회 대의원의 42%가 미국 외에서 오고, 동성애 관련 교단헌법인 장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투표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다. 하지만 교단법을 여겼

을 때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단내 진보파는 법을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장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 내에서 교단 분리 혹은 분열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한인교회 차원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목사(워싱턴감리교회, 총회 현장개정위원장)는 “현재 연합감리교회에 소속한 한인교회들은 지역에 따라 속한 연회가 다르고, 속한 연회에 따라 한인교회에 대한 선교와 목회적 배려에 차이가 있어 한인교회 미래를 위한 통일된 비전을 공유하기가 어려운 만큼 교단내에 한인교회를 위한 제도적 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한인교회를 위한 선교연회 또는 선교구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목사(후리성제일교회, 총회 미래대책위원장)는 “2019년 교단 특별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한인총회의 정치역량이 너무 미약하다. 선교연회와 같은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역량도 미약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의지”라면서 “어떤 결정이라도 한인총회 내부의 뜻과 마음을

모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수 감독(위스콘신 연회)은 “현재 교단을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피하기보다 그 어려움과 함께 헌신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모색하는 새로운 모형을 할 때”라며 “감독과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교회일치라는 성서적인 기초에서 모든 문제를 함께 다루어 한다”고 교회예배 설교를 통해 전했다.

선교연회를 조금씩 추진하다 보면 현재 한인총회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모임에 참가한 이들은 지역총회 연합회와 연회 한인코커스는 물론 차세대 목회 Nexus Ministry, 타인종목회자, 여성목회자 등과 함께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한 대화와 소통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한인교회를 위한 제도적 구조(선교연회 또는 선교구)의 가능성과 앞으로 한인교회에 끼칠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한 Task Force 를 조속한 시일 안에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605-877-2040 wjwj21st@gmail.com).

(기사제공: UMC한인총회)



월드미션대학교 주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김권수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 주최, 강사 김권수 목사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가 주최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세미나가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본교 채플실

에서 김권수 목사(ANC온누리교회)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렸다.

김권수 목사는 “성경이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대화 드라마”라 소개하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이 마치 역사 드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읽어야 한다. 이번 성경세미나에서 66권 성경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역사적인 순서에 입각해 강의할 것”이라 말했다.

세미나는 구약강의(창세기-말라기), 신구약 중간사&신약강의(마-계),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제11회 커피브레이크 국제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변화-세상을 밝히는 성도의 삶” 주제

제11회 커피브레이크 국제컨퍼런스 성료

제 11회 커피브레이크 국제컨퍼런스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변화-세상을 밝히는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퍼시픽 팜스 컨퍼런스 리조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백은실 집사(글로벌 커피브레이크 공동대표)는 “커피브레이크(CB)는 삶을 변화시키는 전도용 성경공부”라 소개하며 “CB의 학습법은 귀납적 방법이다. CB는 본문말씀 안

에서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자라가는 성경공부다. 무엇보다 소그룹 성경공부여서 구역이나 목장모임 또는 주일학교 및 성인 성경공부에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CB를 통해 머리모만 하는 지적인 성경공부가 아닌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성경공부를 경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박종선 CB 북

미주 공동대표가 감사소개를, 양춘길 목사(뉴저지필그림교회)가 '변화1-하나님의 계획과 능력'(롬 8:28-30), '변화2-거룩한 인격과 삶'(엡4:15-16), '주님이 쓰시는 변화의 에이전트'(딤후2:11-14, 몬1:8-14)라는 제목으로 주제 강의를 했으며, 박동건 목사(북미주 한인CB 공동대표)가 디도서/빌레몬서 개관을 강론했다.

그리고 노진준 목사(한길교회)가 '살아냄'(딤후2:9-10), '소'(딤후2:11-14), '변'(딤후3:3-7)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예배 설교를 했다.

백은실 GCB공동대표는 “어떤 커피브레이크가 진짜 커피브레이크인가?”라는 제목으로, 윤원환 목사(피닉스장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여, 변화의 에이전트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송병주 목사(선한침지교회)는 ‘바울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특강을 인도했다.

폐회예배 설교는 찰스김 목사가 맡았다.

(박준호 기자)



필라안디옥교회 VBS를 마치고 참석 어린이들과 발렌티어들이 기념촬영했다.

“Maker fun factory” 주제

필라안디옥교회 VBS, 하은교회&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단기선교 동참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Maker fun factory"라는 주제로 2017 Antioch VBS를 열었다.

안디옥교회는 200여명의 학생들과 120여명의 유스 그룹 발렌티어

들이 참여한 이 VBS를 통해 차세대들을 위한 선교의 기간으로 삼아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지역교회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여름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뉴욕 하은교회와

NC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유스 그룹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VBS를 통한 단기선교 훈련에 동참했다.

이번 VBS는 다양한 스테이션(station)과 찬양 및 예배로 진행돼 참여자들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를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다는 고백도 있었다.

특히 마지막 예배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선포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30여명의 어린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큰 역사도 일어났다.

호성기 담임목사의 비전에 따라 다음 세대를 영적인 리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필라 안디옥교회는 매 주일 드러지는 예배와 여름성경학교(VBS), 그리고 단기선교를 통해 차세대들 양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필라안디옥교회)



한미연합회가 '올해의 비영리 단체상' 수상했다

한미연합회 '올해의 비영리단체상' 수상

한미연합회(사무국장 방준영)은 지난 6월 28일 캘리포니아 새크라

멘토 주 의사당에서 열린 가주 비영리단체의 날에서 '올해의 비영리단체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제 2회째 맞는 이번 행사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약 10,000여 개의 비영리단체 중 95 곳이 선정돼 수상했다.

한미연합회를 추천한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2017년 올해의 비영리단체상을 한미연합회에 직접 수여하게 돼 영광이다. 한미연합회는 방준영 사무국장의 리더십 아래 한인 커뮤니티의 민권 증진을 위해 앞장서왔다. 한민단체로서 처음으로 이 상을 받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으로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이다.

저자_라흥채 목사

도서구입

- 쿨란출판사 : 02)745-1007
- 한국 : 하나님의 구원계획센터 김동훈 목사 : 010-3073-7974
- LA : 기독교서적센터 : 1-323-737-7699
- NY : 하나님의 구원계획센터 라흥채 목사 : 1-917-588-2934, 1-917-968-1024

동부교계 게시판



스마트폰 초급반 강좌

씨존(C-Zone, 대표 문석진 목사)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초급반 강좌(69기)가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3회에 걸쳐 열린다. 강의내용은 전화, 메시지, 사진, 영상, 알람, 카톡입문 등 스마트폰 기초 강의로, 강사는 문석진 목사(뉴욕기독교방송사장), 안드루이드폰(삼성 갤럭시폰, LG폰) 위주로 선착순 접수.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3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한다. 수강자는 스마트폰 강의 DVD를 구입할 수 있다. 뉴욕기독교방송국의 주소는 163-07 Depot Rd. #B-2 Flushing.

▲문의: (718)414-4848

이민자보호교회 후원을 위한 칸타빌레 정기연주회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 이민자보호교회 후원을 위한 칸타빌레 제 2회 정기연주회 "민음의 여행"이 7월 16일(주) 오후 6시30분 후러싱 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17)579-7478

제15회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 리더십 캠프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제15회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을 배우는 리더십 캠프가 7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열린다. 8학년부부터 12학년부생 30명(선착순)을 대상으로, 등록비는 390달러(숙박, 식대, 교재 포함), 장소는 HNA Palisades Conference Center. 등록마감은 21일(금). 다양한 강사진들이 개인의 경험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한다. www.familytouchusa.org

▲문의: (201)242-4422



뉴저지목사회 임실행위원들. 왼쪽으로부터 김태수, 정인식, 김주현, 김종윤, 박근재, 박영주, 한동원, 양혜진, 홍인석 목사.

2017-2018 행사 계획 일정 발표 뉴저지한인목사회 8회기 첫 실행위원 상견례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박근재 목사)가 지난 28일 제 8회기 첫 실행위원 상견례를 갖고 임원 및 5개 분과위원과 1년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임원 및 분과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근재 목사 △부회장 김종윤 목사 △총무 홍인석 목사 △서기 정인식 목사 △회계 박영주 목사 △목회분과 김주현 목사 △교육분과 한동원 목사 △음악분과 김태수 목사 △체육분과 전태호 목사 △친교분과 양혜진 목사 △감사 김정문 목사, 이병준 목사.

8회기 행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여름야유회: 7월 31일/샌디훅 △리더십 세미나: 9월 8일/필그림교회/강사 진재혁 목사 △교회활성화 세미나: 9월 25일-27일/필그림교회 △남성목사합창단 발표회: 10월 22일/한소망교회 △원로목사/증경회장 오찬: 12월중 △목회자 자녀장학금: 2018년 1월 △신년기도회: 2018년 1월중/기도원 △연론인 오찬: 2월중 △분노조절 세미나: 2-3월중 △동부 4개주 체육대회: 5월중/필라델피아.

이외에 뉴저지목사회는 '목사 신분증'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기자제공: 뉴저지목사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6월 정기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시대 편승 말고 바른 복음 전하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6월 정기 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 6월 정기 예배가 지난 28일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이번 회기 초부터 준비해온 웹사이트가 공개됐으며 8월 단기 선교 진행보고, 12월 후원자의 밤 장소 확정 등을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권금주 목사 인도로 기도 김인한 장로, 설교 이종명 목사, 합심기도, 축도 박 이스라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명 목사는 "네 마음을 지키라"(잠4:23)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3분 설교를 준비했으나 마음에 울림이 있어 30분은 해야겠다고 말하고 "마음을 감옥을 입으라"며 "인간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 죄인데, 어떤 고난 중에도 죄를 범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나 자신부터 모든 교역자들이 더러운 것 씻어버리고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며 "이 시대 물질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화의 수렁에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

면 양심도 신앙도 던져버린다"고 분개했다.

이 목사는 또 PCUSA 교단의 동성결혼 허락, 인터콥 등에 대해 설명하며 "뺑과 복음을 전하는 기아 대책은 협박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바른 복음, 순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회의는 유상열 회장 기도 후 웹사이트(www.breadgospel.org)를 공개하고 후원자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명했다.

이어 전희수 사무총장이 5전반기 후원자 정리 및 하반기 후원자 배가 △8월 엘살바도르 단기선교(7-10일, 4명 파송) 후원 요청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순서지에 광고 △12월 후원자의 밤(3일 오후 6시) 장소 확정(뉴욕 늘기독교회) 등을 보고했다.

이외에 신규아동결연 3명, 2018년 단기선교지 과테말라(장영순 선교사) 잠정 결정 등에 대해 발표했다. 과테말라는 올 하반기에 화장실과 부뚜막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이날 회의는 박진하 목사 폐회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 2017 대뉴욕복음화대회에서 강사 정성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상처를 극복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은사를 사용하라" 할렐루야 2017 대뉴욕복음화대회, 강사 정성진 목사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이 주최하는 뉴욕교계 최대 연합 연례 행사인 '할렐루야 2017 대뉴욕복음화대회'가 지난 7일부터 사흘간 프



뉴욕교협이 주최한 할렐루야강사 정성진 목사 초청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시대를 분별하라!" 주제로 뉴욕교협, 할렐루야강사 정성진 목사 초청 세미나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은 할렐루야 2017 대뉴욕복음화대회를 마치고 다음날인 10일 오전 9시 금강산 연회장에서 강사 정성진 목사(광성교회 담임)를 초청, "시대를 분별하라!"(마16:1-4)라는 주제로 목회자세미나를 열었다.

교협 총무 임병남 목사 사회로 최현준 목사의 찬양인도, 이광희 이미션 목사부부의 특송후 강의를 시작했다.

정성진 목사는 "이 시대를 잘 알고 가면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다"며 약(도덕적 타락)과 음란(영적 타락)의 시대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바리새인(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과 사두개인(기회주의자, 물질주의자)에게 하신 말씀이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된다"고 말하고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는 영웅은 지나가고 사사시대로 들어섰으며 영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합활동이 어렵다"며 "그러므로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경제성장시대가 오면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며 "교회가 밖으로 나가 전도하는 패러다임전

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목회자가 3, 40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던 시대는 지났다. 조직혁신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바꾸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자신은 2019년 한국 나이 65세에 은퇴한다며, 지금까지 18개 교회를 개척 분립했다고 말하고 △한 영혼에 집중하라 △12제자 공동체를 세워라 △100명이 정답이다 △1천명 되면 분립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설교표절은 없다, 출처를 밝히면 된다, 소그룹의 칼을 갈라, 수도사적 영성을 가지라" 등으로 질문에 답했다.

뉴욕교협이 이번 할렐루야대회는 '강사후원금이 없는 대회'라는 명제를 강조했던 만큼 강사 정성진 목사는 "돈내고 설교하는 것이 이해가 안됐다"고 대회 하루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김홍석 회장은 "정 목사님께서 선물이라며 1천만원을 주셨다"고 밝힌 바 있다.

세미나는 뉴저지교협회장 김종국 목사 축도로 마쳤으며 한재홍 목사가 식사기도했다. (유원정 기자)

전도특공대로 훈련, 복음증거 한다! 뉴욕전도대학교 2017년 봄학기 종강예배

뉴욕전도대학교(교장 허윤준 목사) 2017년 종강예배가 6월 28일 오전 10시30분 뉴욕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윤준 목사)에서 열렸다.

교장 허윤준 목사는 "2백여 인종이 모여 사는 뉴욕에 복음을 전하고자 지난 11년간 70여명의 전도대학교 졸업생들을 양육하고 배출해 각처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며 "전도 특공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 인격적으로 훈련돼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배는 인도 차철회 목사(교수), 기도 정기태 목사(이사), 특송 청지기부부합창단, 말씀 김홍석 목사(뉴욕교협 회장), 헌금기도 이종태 목사(이사), 교장 인사, 축도 김영환 목사(교수)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홍석 목사는 사도행전 13:1-5을 본문으로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안디옥교회와 같이 성령님이 주도해 선교와 전도를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의 특징은 △지도자와 회중이 같은 비전으로 같이 세워가는 교회 △영애버린 한 영혼을 찾아나서는 교회 △용서와 용납이 있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말했다.

뉴욕전도대학교는 이번 신입 교수로 김석형, 김수태, 김영식, 이용걸 목사를 영입했으며, 현재 김영환, 이지용, 이희선, 임용수, 차철회, 허윤준, 현영갑 목사 등이 교수진을 이루고 있다.

또 김성국 목사 등 12명의 이사진을 구성해 재정적으로 전도대학교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을학기는 9월 13일(수) 개강해 매주 수요일 오전에 강의하며, 강의 후에는 노방전도를 나간다. 이때 사용하는 주요 전도지는 전도대학교에서 교회들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제공하는 전도지로, 4개 국어로 된 사영리 전도내용이 들어있다.

전도지 신청 및 입학문의는 (718)637-1470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뉴욕전도대학교)



뉴욕전도대학교 2017년 봄학기 종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다"고 강조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은사는 구원 받은 자에게 일하라고 주신 선물"이라며 은사(카리스마)와 은혜(카리스)와의 관계를 풀이하고, "은사는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것"이라며 "연료중심적이 아닌 은사중심적 사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의 유익을, 형제에 덕을, 자신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며 "은사를 발견하고 배치하라, 역할을 조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확산하라, 강요하지 말라, 조화를 중시하라" 등을 제안했다.

대회는 김희복 목사 이만호 목사 김정호 목사가 사회를, 대표기도는 문석호 목사 김성국 목사 최예식 목사가, 성경봉독은 이상호 집사 강영규 장로 강현석 장로가, 찬양은 프라미스성가대 퀴즈장로교회성가대 후러싱제일교회 성가대가 맡았다.

설교후 헌금기도는 이준성 목사 양민석 목사 조원태 목사가, 헌금송은 뉴욕장로성가대 뉴욕권사선교합창단 뉴욕사모합창단이, 광고는 최현준 목사 최요셉 목사 임병남 목사가, 축도는 허걸 목사 김상태 목사 방지각 목사가 각각 맡았다.

경배와 찬양은 목회자찬양팀 순복음연합교회찬양팀 프라미스교회 찬양팀이 맡았으며 둘째날 특송은 칸타빌레중창단, 마지막 날엔 케리그마남성중창단이 맡았다.

한편 어린이복음화대회는 김창렬 목사(선한이웃어린이선교회 대표)를 강사로 체육관에서 열렸다. 청소년복음화대회는 세미 리 전도사(미주사랑의교회)를 강사로 10월 6-7일 퀴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11월 4일 뉴욕성결교회(담임 이기용 목사)에서 각각 열린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명 목사, 유상열 목사.

뉴욕목사회 세미나에 인터콥 강사 논란 뉴욕교협 이단사이비대책협 기자회견, "대표단체 주관 안돼"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 산하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회장 이종명 목사)가 뉴욕교협 신학윤리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유상열 목사)와 함께 지난달 29일 오후 2시 교협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은 뉴욕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가 7월 3일 개최하기로 했던 이슬람권지역 선교전략 세미나가 인터콥(최바울 선교사)과 관련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인데, 뉴욕목사회는 이 회견소식을 듣고 당일 기자회견 직전에 세미나 주관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는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대형교단과 미주의 교단들이 인터콥을 교류단체 내지는 참여금지 단체로 규정할 만큼 그 위험성을 알려려 한다며 준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인터콥은 한국 교단조직으로 합동(2014, 교류단절,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통합(2016년, 예의주시, 참여금지), 고신(2016년, 참여교류 금지, 불건전한 단체), 합신(2014년, 일체 참여금지, 매우 심각한 이단성)과 미주 교단조직으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2011년, 참여 및 교류금지, 개혁주의 신앙에 위배되는 불건전한 단

체), 미남침례교한인총회(2014년, 교류금지, 참여자제, 신론 인간론 창조론 죄론에서 자의적 성경해석), 미주합동(2014년, 이단, 극단적 세대주의, 베뢰아 사상, 신사도 운동) 등의 판정을 받았다.

또 "교계의 공적기관이 뉴욕목사회가 문제성이 많은 인터콥(최바울)을 강사로 불러 세미나를 주관하는 것은 뉴욕교계를 분열시키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히고 "김상태 목사가 회장에 당선되기 전 인터콥과의 관계로 문제가 됐지만 관계단절의사를 밝혀 시비없이 회장에 당선됐는데 지금 다시 이 관계를 진행하는 것은 신학 이전에 목회자의 신뢰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목사회는 취소 이유가 인터콥 때문이 아니고 교협이 주최하는 "할렐루야복음화대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계가 양분되는 현상과 연합의 가치를 깨뜨리는 우려가 있어"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6월 30일자,) 기사에 따르면 김상태 목사는 "인터콥이 전혀 문제가 없는 단체"라며 "사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종명 목사는 지난 2015년 프라미스교회에서 시도하려 했던 인터콥 대회와 지난해 10월 킷대 회에서 최바울을 강사로 세운 것을 철회시킨 것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유상열 목사는 "이번 문제는 영적 질서이자 덕목에 관한 문제"라며 "이단성은 연합단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과 미주의 종교단체에서 정한 것이므로 이를 존중하고 인터콥의 폐해를 알려서 교인들이 참가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비전을 새롭게” 주제

미주예성 2017년 교직자연합수양회, 서남지방회 첫 참여

예수교미주성결교회(이하 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회장 김영일 목사)는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017년 교직자 연합수양회”를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리조트에서 50여명의 교직자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수양회는 “비전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미국 서부지역에 미국서남지방회(이하 서남지방회)가 창립된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수양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컸다.

또한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연합수양회는 교직자를 위한 세미나와 연합기도회, 요세미티 투어, 조별장기자랑, 레크리에이션 등 다

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가졌으며, 교직자간의 애뜻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이뤘다.

이날 연합수양회 주강사로 나선 윤희성 목사(Joshua Yoon, 일산 동인교회 담임)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며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과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하며 총 네 번의 강의를 인도했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양홍규 목사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동적인 수양회였다. 영적으로는 생명의 말

씀으로 충만하고, 육적으로는 즐겁고 행복한 회복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미국서남지방회는 지난 제14차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2016.10.25 뉴욕총회)에서 미국 서



시인과총장 하덕규 라이브콘서트에 예전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예전교회 하덕규 목사 초청 콘서트

예전교회(담임 김민재 목사 원성재 목사)는 시인과총장 하덕규 목사 라이브콘서트를 8일 오후 7시 성황리에 개최했다.

하덕규 목사는 “소박한 밤상 같은 공연을 생각하며 이 공연을 준비했다”며 “노스윌스한인교회와 합병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예전교회가 공연을 통해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하 목사는 ‘가시나무’, ‘사랑 일기’, ‘한계령’, ‘풍경’, ‘내 진정 사모하는’, ‘나무’, ‘예수’ 등을 불렀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이날 모인 청중들과 함께 불렀다.

또한 기타리스트 김양일 집사가 찬조 출연해 이날 공연을 빛냈다. (박준호 기자)

정창군 목사 애국송 ‘좋아좋아 서울’ 발표

한국 교계 재즈가스펠의 개척자로, 색소폰 3개를 동시에 연주하는 이색 기록의 소유자인 정창군 목사(월드재즈가스펠미션 대표)가 최근 자신의 ‘인생 노래’로 꼽을 애국송 ‘좋아좋아 서울(Proud Seoul)’을 발표했다.

정 목사가 작사 작곡한 이 노래는 CCM 가수로 활동 중인 부인 정태미 사모가 불렀다. 정 목사는 “2010년 한국 공연 중 한 단원이 자신에게 한국을 사랑하라는 노래를 만들어 볼 것을 권유했었다”며 “지난 2년 동안 산고를 겪은 끝에 최근 1개월 동안 녹음해서 세상에 발표하게 됐다. 발표하고 나서 지인들에게 들려주었으며 유튜브 등에도 연주를 곡을 올렸다.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창군 목사가 최근 애국송 ‘좋아좋아서울’ 발표했다. 사진은오른쪽이 정창군 목사 왼쪽은 좋아좋아서울을 부른 정태미 사모

3개 색소폰 동시 연주로 유명한 정 목사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있는 것은 물론, LA타임스, KBS 열린음악회, SBS 스타킹에 출연해 화제를 모기도 했다.

좋아좋아서울의 반주는 10인조로 구성된 정창군 가스펠 빅밴드가

연주했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1. 무지개가 떠오르는 세종궁 용맹스런 충무공을 바라보며 비둘기가 춤추는 시냇물 아이들이 뛰어놀며 기뻐하네 2. 우리 조상 열이 있는 덕수궁 연인들이 행복하게 갈아가고 세계에서 제일가는 우리말 광화문에 세종대왕 우뚝섰네 (후렴)정다운 곳 우리의 서울 자랑스런 대한민국 온세상에 빛나리 영원히 뻗어나가네/좋아좋아 서울 가고 싶은 나라 좋아좋아 우리조국 사랑해요/좋아좋아 서울 보고 은 나라 하나님께 보오하는 대-한국. (박준호 기자)



2017예성 교직자 연합수련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혜천 방동섭 시인 시집출판감사예배에서 방동섭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혜천 방동섭 목사 출판감사예배 저서 “눈물 속에는 미소가 있다”

혜천 방동섭 목사 시집 “눈물 속에는 미소가 있다” 출판감사예배가 7일 오후 6시 30분 JJ그랜드호텔에서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 주최로 열렸다.

방동섭 목사는 인사말에서 “광야 학교에 입학한지 14년을 지나고 있다”며 “LA는 광야학교라는 생각이 든다. 광야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배움의 과정을 통해 나온 시가 많다”고 말했다.

방 목사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시집을 내게 됐다”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시를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보영 장로(기독교문인협회 부회장, 수필가) 사회로 시작된 출판기념회는 최선호 목사(문학평론가, 시인), 임영호 목사(소설가, 시인),

김문희 시인(작가집 이사장)이 서평을 했으며 정정숙 시인(본협회 이사장), 김주경 시인(본협회 전 이사장), 이인미 시인(문화선교원 시전 대표)이 시낭송을, 그레이스 방자매와 소냐 방자매가 방목사의 시를 영시로 낭송했다.

이어 김학형 시인(미주크리스천 문인협회 이사)과 김정호 목사(패트리카톨릭교회 총장)이 축사했으며 정정숙 이사장이 축하례를 증명했다.

한편 출판기념회 전에 열린 예배는 이성주 목사(시인, 미주감신대학장) 사회로 시작, 이명수 목사(청운교회 담임)가 기도했으며 고영준 목사(문학평론가, 시인)이 ‘예배에 셸’(삼상7: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표세홍 목사(KAPC 서가주교회 노회장)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백기현 교수 제 6차 미국 집회

55년 동안 고향등으로 불편하게 살아오던 백기현교수(국립공주대 교수)가 치유함을 받고 찬양과 간증집회를 갖고 있다. 이번 7월 7-30일 이어지는 미국 순회 집회는 남가주수성성결교회(9일), 남가주 산성교회(12일), 샌디에고 베델교회(16일)와 오하이오 지역에 집회가 예정되었다. 성곡오페라 단장, 오페라 이순신 제작자, 국무총리상, 화관문화훈장을 수상한 백기현 교수는 서울음대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하고 비엔나 국립음대 수석학위이며 현재 공주대학교교과장, 국립공주대학교 음악과 교수, 공주대학교 교수, 신우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백기현 교수 초청에 관심 있는 교회나 단체는 문의 바라고 집회시간은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모두 가능하며, 2-3회의 부흥회도 가능하다.

▲문의: (213)880-8600박형만 장로, (310)245-4389

나성영락교회 말씀성회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14일(금)부터 16일(주)까지 정성진 목사(거룩한빛 광성교회 담임)를 초청 ‘새 사람을 입으라’는 주제로 한 여름 밤 말씀성회를 개최한다. 금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 주일 1부-5부 예배 시간.

▲문의: (323)227-1400

LA 기윤실, 제 1회 건강교회교실

LA 기윤실은 오는 7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건강한 설교’, ‘교회 정치’, ‘교회 재정’, ‘교회론’, ‘이민교회’, ‘교회갈등’ 등의 주제로 건강교회 교실을 개최한다. 점심이 제공되며 회비는 없다.

▲문의: (213)387-1207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7년 신(편)입생 모집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는 2017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한다. 모든 학위과정은 100% 온라인 강의로 수강할 수 있으며 ESL과정, 학사(BA), 교역학석사(M.Div)과정, 크리스천상담심리석사 과정 등이 있다. I-20 발행은 물론 여러 가지 특전이 있다.

▲문의: (562)926-1023

AGST-Pacific 신학대학원 특강

AGST(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Pacific(학장 노봉린 박사)에서는 여름특강과 함께 가을 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여름 특강은 8월 14일부터 24일까지이며 ‘제 3세계 선교운동’(강사 노봉린 박사), ‘현대미술과 선교’(강사 최민준 박사)를 강의하며 가을학기는 8월 29일부터 시작된다.

▲문의: (808)734-7697 / agstpacific@gmail.com



미주기독한인사 협회 약손한의원 및 미주기독한인사협회 사무실 개원식을 가졌다

미주기독한인사협회, 약손한의원 및 사무실 개원식

미주기독한인사협회(회장 정종오)는 7월 1일 오후 12시30분에 을림파크 세라노에 위치한 충효태권도가 있는 건물 안에서 ‘약손한의원 및 미주기독한인사협회 사무실 개원식’을 가졌다.

협회임원 및 이사회가 참석한 가운데 박성근 목사(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담임)의 인도로 약손한의원 재 개원감사예배 후에 미주기독한인사협회 헌관식을 가졌다.

창립 17년째를 맞이한 동 협회는 사무실을 개방해 영세민 무료치료 프로그램과 한의사들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된다.

▲문의: (213)500-6393, 703-8541

(기사제공: 미주기독한인사협회)

세 giới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5:30(토)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 Fax: (714)521-4636 63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3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011 /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영-금): 오전 5:30 평일예배: 오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6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주둔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	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예배: 오후 1:20 영아원(침소:KDC, 침평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금요일예배: 오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에서 돌아와서 있는 우리의 목숨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2-7728 (전환 팩스 발송),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8 L.A., CA 90033	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임의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6700 Harvard Ave., Torranc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E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전 6:00(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5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www.graceml.com Tel: (714)446-629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n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	종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전 11:45 목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unichurch.org Tel: (714)846-6299 Fax: (714)846-862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청년)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미예배: 오전 10:00 장미예배: 오후 8:00 www.cornestonelv.com / e-mail: pastor@corneston.com Tel: (310)530-4040(OH), Fax: (310)530-9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크엔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청년)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미예배: 오전 10:00 장미예배: 오후 8:00 www.torre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8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한국교회, 퀴어축제 맞서 대규모 국민대회 연다

7월15일 서울 대한문광장... 행사후 청와대까지 퍼레이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통합 대 신 고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성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7월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축제에 맞서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국민대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대한문 광장에서 열리며 행사 후 청와대까지 퍼레이드를 한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공적 공간에서 동성애자들이 음란 행사를 갖는 일이 정례화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을 계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회째인 국민대회는 식전 행사와 연합예배, 기도회, 국민대회, 퍼레이드 순으로 진행된다. 연합예배에선 최낙중 전 예장대신 총회장이 설교하며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이용희 예스더기도운동 대표, 염안섭 수도권 세요양병원 원장, 김지연 약사 등 전문가들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국민대회 후 참가자들은 오후 4시부터 가족단위로 대한문 광장을 출발해 미국대사관과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퍼레이드를 할 예정이다.

대회를 맡은 김진규 예장합동 총회장은 “창조섭리에 어긋난 동성애를 받아들인 서구사회는 도덕과 윤리는 물론이고 신앙마저 무너지고 있다”면서 “한국이 서구사회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건전한 성 윤리를 지키고 동성애의 법적·도덕적·보건적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국민대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을 맡은 이병대 바른인권 연구소장도 “크리스천은 동성애자의 천부인권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인권에 해당되지 않는 그들의 위험한 생활양식 때문에 예이츠가 확산되고 건강할 가치가 깨지며 군 기강이 문란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교회연합 등 8개 연합기관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동성애자들의 서울광장 사용을 3년 연속 방임했다”면서 “박 시장은 동성애자의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퀴어축제 박원순 시장, 불통행정 각성하라”

한동협 등 4개 단체 기자회견 열고 3년 연속 승인 비판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는 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연속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를 승인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불통행정을 비판했다.

김수용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상임회장은 “몇년 전 박원순 시장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임원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을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으며 서울광장의 동성애 축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그러나 박 시장은 올해 보란듯이 동성애축제를 승인함으로써 성직자들을 우롱하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있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도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는 잘못된 성문화”라면서 “따라서 동성애축제를 공공장소인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도록 승인한 박 시장은 매우 잘못된 시정을 펼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천주교 신자들을 비롯한 많은 서울시민들이 동성애 축제 서울광장사용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박시장은 이를 묵살했다”면서 “박 시장은 동성애축제의 서울광장사용을 취소시키고 시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하 건강대한민국국민연대 공동대표도 “동성애는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로 대한민국에 맞는 건강한 문화가 아니다”라면서 “건강한 성윤리를 만들려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기 보다는 동성애에서 탈출하여 치유회복하는 탈동성애를 강

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표는 “박 시장은 시정을 거꾸로 이끌고 있다. 진정 소수자 인권을 위한다면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먼저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호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서울광장조례에 서울광장은 서울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휴식을 위한 공공의 공간으로 나온다”면서 “혐오스러운 행사를 하거나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시장은 직권으로 행사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박시장은 별거벗은 나체차림의 동성애음란축제의 장소로 내줌으로 시장으로서의 임무를 포기했다”면서 “지속적으로 광장사용승인취소를 요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박시장의 불통행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불통'이라는 헤드폰을 낀 박 시장에게 소리치는 퍼포먼스를 했다.

수정성결교회 담임에 이성준 목사

조일래 목사는 원로목사 추대

인천 수정성결교회 2대 목사에 대전 성산성결교회를 담임하던 이성준 목사가 취임했다.

이 목사는 9일 인천 서구 불로로교회에서 열린 원로목사 추대예식 및 담임목사 취임예식에서 조일래 원로목사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이 목사는 “이웃에 복음을, 농어촌에 선교비를, 전 세계에 선교사를”이라는 선교유산을 이어받아 더

욱 적극적으로 선교지향적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면서 “조 목사님의 선교 DNA를 이어받아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목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서강대 철학과와 서울신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월간 낮은울타리 편집부장과 세계복음화문제연구소 이사, 대전CBS 이사를 지냈다.

동성애옹호논란 임보라 목사 이단성 조사

8개 주요 교단 이대위, 조사 자료 공유

동성에 옹호·조장 논란을 빚고 있는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가 주요 8개 교단으로 확대됐다.

8개 교단 이대위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통합 대신 고신 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한국교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8개 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임 목사의 이단성 조사 자료를 공유하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소속인 임 목사는 2014-2016년 서울광장 퀴어축제에 참석해 성찬식을 하고 설교와 축도를 해주는 등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퀴어성경주석 발간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진용식 예장합동 이대위원장은 “예장합동이 가장 먼저 오는 9월 총회 때 임 목사에 대한 이단보고서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학자들은 창조섭리를 뒤흔드는 퀴어신학의 유입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퀴어신학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목회자들이 추종하는 이론으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며 동성애를 언급하는 성경구절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게 특징이다.

대표적 퀴어신학자는 유진 로저스와 엘리자베스 슈투어트다. 이들은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의 몸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한 몸에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은 불완전하고 유동적이므로 쉽게 바뀐다는 게 골

자이며 동성 간 성행위, 동성결혼, 성전환 등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한다.

이상원 총신대 신대원 교수는 “퀴어신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1남 1녀의 결혼제도를 파괴하고 교회와 사회를 허무는 이론적 무기가 되고 있다. 정통교회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도 “신학자 판넬베르크의 지적대로 교회가 동성애를 승인하고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동일시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사도적 교회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반면 기장 전국여교역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신학적 해석과 윤리적 가치판단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일이며, 일방적 마녀사냥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면서 “임 목사에 대한 이단성 시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다시 서게 하소서”

4000여 원로목회자 한자리에 외쳐

201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및 원로목회자 체육대회가 4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우리가 다시 서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1만2000여명의 원로목회자 중 400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임원순 목사)이 주최하고, 201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조직위원회(명예총재 이태희 목사)와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총재 강영선 목사),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총재 정근모 장로) 등이 공동 주관했다.

대성회는 김진욱 목사(한국기독교기독인문제단 총재)의 개회사, 이삼모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문세광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대표회장)의 대표기도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설교, 김상복 목사(엠티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정근모 장로(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총재)의 특별 메시지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교회 지도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나라안정과 경제성장’ ‘남북한 평화통일’ ‘한국교회 부흥성장’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

또 임원순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강영선 목사(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총재)의 환영사, 한은수 감독(한국기독인문제단 총재)의 개회사, 이삼모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명예회장)의 취지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립인식 목사(예장 통합 증경총회장)·최복규(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증경회장)·김동권 목사(한국교회연합 명예회장)·김진호 감독(기감 증경감독회장)·김명혁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송용필 목사(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대표회장)·김성길(한국기독인문제단 고문) 목사가 차례로 단에 올라 격려사 및 축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배진구 목사(한기총 사무총장)의 인도로 ‘우리가 다시 서게 하소서’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한국교회공보 문병원 편집국장이 자선경사에서 모인 성금을 임원순 목사에게 전달했다.

이어 신신목 목사(한국기독교기독자협의회 대표회장)의 축도, 역시 동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공동회장)의 오찬기도 및 기념사진촬영으로 대성회를 마쳤다.

점심식사한 뒤 오후에는 원로목회자 체육대회가 이어졌다.

한국내 최대 규모 CCM오디션

‘가스펠스타C 시즌7’ 막 올라

국내 최대 규모 CCM오디션 ‘가스펠스타C 시즌7’ 막 올라다. 기사 목사는 “주님은 50년 전 저를 불신 가정에서 불러주시고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때를 따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면서 “40년 사역 동안 주님의 인도대로 따랐을 뿐이며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CCM오디션 ‘가스펠스타C 시즌7’이 막을 올렸다.

주최 측인 아가페문화재단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스펠스타C 시즌7이 다음 달 26일까지 온라인 및 지역 예선을 거쳐 멘토링 캠프에서 ‘TOP10’을 선발하고 11월 10일 최종본선을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엔 미주지역으로까지 확대해 오디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구체적 일정과 관련해선 8월 6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마감하고 멘토링 캠프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는 녹음한 mp3음원을 업로드하거나 영상 또는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 주소를 참가신청서에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오프라인 예선을 실시해 2박3일

멘토링 캠프에 참여할 70여 팀을 선발한다.

지난해에 이어 찬양사역자 민호기 동방현주 강찬이 시즌7에서도 멘토로 나선다. 이들 외에 유은성 자두가 함께한다. 미주지역 예선은 이송철이 부른 ‘마더의 공동 작사·작곡가인 김유신이 멘토로 참여한 다. 멘토링 캠프를 통해 선발된 최종 10팀과 미주지역 우승팀이 생방송 무대를 펼친다.

2011년부터 시작된 가스펠스타C에는 그동안 3500여 팀이 참가했다. ‘팬텀싱어’ 우승자 김현수, ‘스타킹’ ‘히든싱어’ 등을 통해 가수 박정현 모창으로 유명해진 김지선, ‘K팝스타’ 톱3에 오른 이진아 등이 가스펠스타C 출신들이다(02-3153-1023·gstarc.cchannel.com).

한국교회 ‘통일’ 외쳤지만...성도들은 무관심

기독교인 721명 설문조사

남북통일은 한국교회의 오랜 기도제목 중 하나다. 2015년에는 서울광장에서 수십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70주년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도 개최했다. 통일 관련 포럼과 세미나도 수시로 열린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열의가 높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벤트 위주의 통일운동이 갖는 한계라는 지적이 많다.

유에서도 33%가 ‘지금 현 상태가 좋아서’라고 답변했다. 30대의 회의 통일교육분과 학술지에 발

표한 ‘통일에 관한 기독교인의 의식과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이상 기독교인 7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6%가 ‘통일에 전혀 관심 없다’, 56%가 ‘별로 관심 없다’고 답했다.

통일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23%를 차지했다. 이유는 ‘통일비용이 부담돼서’(43%)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남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질까봐’(28%)가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통일에 반대하는 20대(35%)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17~22%)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20대는 통일에 반대하는 이

16% ‘통일에 전혀 관심 없다’, 56% ‘별로 관심 없다’ 통일 반대 23%...20대 가장 많아, 통일비용부담(43%)이 이유 1위

20대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이는 통일연구원이 일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결과와도 유사하다. 당시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분단 고착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이 20대에서 55%로 가장 높았다. 30대는 42%, 40대는 31%, 50대는 25%, 60대는 19%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의 분단체제 유지를 더 원한 것이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관리본부 연구부장은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심리는 통일을 실용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3.9%에 그쳤다. 특히 20대 응답자 중에는 교회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이가 한 명도 없었다.

목원대 김정희(기독교교육학) 교수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만 했을 뿐, 구체적인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령대별로 통일에 대한 인식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교단 및 교회별로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써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교도소 선교칼럼 (25)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교도소 자원봉사자의 치유의 간증

변화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는 재소자들과 노숙자들에게 책을 무료로 배포하여 그들의 영적인 구원과 성장을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는 이 문서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변화프로젝트 문서선교 봉사자, 양은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양은혜 씨를 만나 교제하게 된 것은 2015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었던 기도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부터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저의 간증과 침묵기도에 대한 강의, 그리고 교도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부흥에 대해 들으며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양은혜 자매님은 제가 섬기고 있는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를 방문하여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그녀는 변화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에서 영어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과 한국어 책 교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사역에 봉사하며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치유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소자들의 간증과 양은혜 씨의 영적 치유

저는 두 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주부로,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가정에서 인간의 어두운 면을 많이 보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사춘기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하게도 신앙 안에서나 세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주위사람을 가해한 적은 없었지만 저의 분노와 복수심의 노예가 되어 저 자신을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나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짓밟은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향한 나의 복수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한 신념들은 저의 무의식 가운데 마치 저의 보호막인 듯 달라붙어 떨어져 나갈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나라에 이민 와서 살며 누가 보아도 행복해 보이는 가정 안에서, 우울증과 자살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기도생활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동시에 여러 해 동안 전문상담인의 상담과 그룹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치유되었을 뿐 철창 안에 갇혀있는 듯한 무력감과 분노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이영희 목사님을 통하여 제가 단 한 번도 생각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교도소 선교에 대해 눈뜨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의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책들에는 영희 목사님과 재소자들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재소자들의 삶과 하나님 만난 이야기 속에서 그들을 부둥켜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지나며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치유가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만지심으로써 마치 제 영혼에 담겨있던 돌덩어리가 도려져 나가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자살충동과 살인적인 분노에서 해방되었으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집념의 무거운 갑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변화 프로젝트 책들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저를 훈련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길"을 읽으며 그동안 관념적이었던 영적전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배운 내용들을 제 삶에 적용하며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있으며 저와 주위 사람들을 돕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며 많은 것들을 배워 왔지만 재소자분들과 영희 목사님의 현장경험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명과 소망을 제게 불러 넣어 주었습니다. 재소자분들이 어두움을 버리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제가 그동안 가장 갈망해왔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기 전까지 저는, 사람은 왜 변하지 않고 그렇게 악하기만 하냐고 하나님께 절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간증들을 읽으며, 주님을 만나고 치유와 거듭남을 경험한 재소자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덴버 콜로라도에 영희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도소를 방문했다가 조지 메들리라는 분의 사업체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재소자로서 일찍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의 일터에는 만화로 재미있게 역은 작은 전도지들과 그분을 상사로 모시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장인 조지 메들리는 규모 있는 사업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그분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있으며 목사님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예배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도 삶에 병들어 아픈 부분들을 제거하시고 그곳에 꿈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게도 예수님과 영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게 간증을 통해 용서의 기적과 영적 승리를 소개해주신 재소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재소자들이 변화 프로젝트의 책들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나 성경말씀에 뿌리내려 순종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최근에 "예수님과 걷는 길"을 읽으며, 책속에 예수님과 소년처럼 살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 걷는 인생여정은 열매가 풍성할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감춰져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던 제 안에 온전한 행복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행복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은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그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과 가까이 계십니다.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 하시느니라"(시34:18). 마음이 상한 자들이 교도소에서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지내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저는 그분들과 가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됨을 찬양하며 변화 프로젝트에 한 지체가 됨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눅8:21).

양은혜 씨는 2016년에 신학공부를 시작하여 직접 교도소 안에서 사역을 하고자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준비 중입니다. 저는 재소자들 뿐만 아니라 교도소 밖에 계신 분들도 교도소 문서선교의 책들을 통하여 영적치유와 성장을 경험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였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교도소 문서선교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선교 편지

2017년이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꾼들께 소식을 전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다시 전합니다. 어지러운 조국의 정치 경제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세요. 파라과이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사역에도 열심히 뛰고 있습

파라과이

도 다르지 않고 몰가는 공고를 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풍조가 이곳에서도 끼어들고 있습니다.

1. 기독교 예술 유,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32명의 교사들이 복음과 지식을 겸비하여 잘 가르치고 있으며 인



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뜨거운 기도와 사랑의 선교후원금은 파라과이 새생명 살리기 운동에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타격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매일 잊지 않으시고 정성어린 선교 후원금을 송금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파라과이

성교육에도 더 비중을 두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영성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복음으로 인격부장을 위하여 열심히 가르치고 실습하고 있습니다.

(14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오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후 7:30(월-금) 오전 6:00(토) Tel: (206)579-7576, Fax: (206)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501)920-1512, Fax: (501)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벨앨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성경):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lthe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 유년, 종교단체: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Fax: (704)529-0900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회: 새벽 6:0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오 예 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오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ac.org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ajoc.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org	앵커리지벨리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lthechurch.org/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542-1490, 사해: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Ave.,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린노드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오전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토요일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오전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1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o.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브라질 한국인 선교역사 (2)



강성철 선교사

2) 국적 없는 한인선교사 반공포로

브라질 디아스포라 한인 선교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진행되었다. 휴전협정 조인에 따라 포로교환 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중립국으로 송환되어 인도에 머물다가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에 입국한 50명의 반공포로는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그 중에 강희동 문명철 이준희는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다. 이들은 국적 없는 한인 선교사역을 감당했다.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이 있었고

다. 북동부지역(Regiao Nordeste)은 마라냥(Maranhao), 피아우이(Piaui), 세아라(Ceara), 히오그란지 도 노르찌(Rio Grande do Norte), 빠라이바(Paraiba), 빠르남부찌(Pernambuco), 아라카주(Aracaju), 세르지페(Sergipe), 바이아(Baia) 9개 주와 웨르난도 노로냐(Fernando Noronha) 1개의 연방 직할령으로 되어있다.

중서부지역(Regiao Centro Oeste)은 마포 그로스 도(Grosso do Sul), 마포 그로스 노르찌(Mato Grosso do Norte), 고이아스(Goias), 혼도니아(Rondonia) 4개주와 1개 연방직할인

문명철 목사는 최초의 교포교회인 연합교회 초대당회장, 서머나교회, 동양선교회 등 많은 교포교회들을 섬기며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했으며 브라질 감리대학교 교수로서도 인정을 받았다.

강희동 목사는 한인교회 선교목사를 하면서 전 교포교회 선교에 공헌하였고 미주선교부와 브라질 및 파라과이 선교에 교량역할을 하면서 한국교회 파송선교사들의 정착에 필요한 제반업무 돌보아주는 멘토 역할을 하였다.

이준희 선교사는 바울선교회가 시작한 남부신학교 창립장을 하면서 신학교의 틀을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하

교사-1968년 6월 미국 그레이스 형제선교회 파송 6양승만 선교사-1968년 3월 한국예수교장로회(합동) 선교사 파송 삼김성준 선교사-1969년 4월 30일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 파송.

한성욱 선교사는 파라과이연합교회, 아르헨티나한인교회, 브라질한인교회를 각각 설립하고 김승만 목사와 동역하면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였다.

김계용 선교사는 1963년 4월 15일 창립한 브라질 최초 한인교회인 연합교회의 목사정빙을 받아 통합측 장로교단명을 받아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받아 1967년 5월 14일 브라질에 입국하여 연합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와 함께 선교를 하였다.

황문규 선교사는 재미한인교포 출신으로 미국에서 대학교 신학을 마친 후 미국 남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받아 초창기 한인교회연합 사업을 도울 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언어가 자유로운 황 선교사는 한인교회들과 브라질 현지인 교회들과 미국 장로교 선교회간의 협력사역에 교량역할을 감당해왔다.



(13면에서 계속)

앞에 새로운 학교 2개가 초현대식으로 세워져서 학생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적인 타격도 받고 있습니다.

2. 5개 교회는 주님의 은혜 중 날로 성장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고, 5개 교회 중 4개 교회는 이양을 하고 할렐루야교회만 담임하면서 더욱 발전할 길을 모색하며 새벽마다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찬양도 하고 성경을 매우 한결씩 암송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을 맞아 두 명의 유아세례 교인이 탄생하였습니다.

교인들을 키우는 길은 참 어렵고도 먼 길입니다. 인내심이 약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 보이고 신앙의 열매가 참 찾기 어려운 천주교 나라의 실정입니다.



3.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대학은 12명의 교수들과 70여명의 학생들이 하늘나라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3월부터 11월까지 학업을 수료하며 한 학기 7-8과목을 수학하며 많은 숙제와 강도 높은 수업으로 학생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과 지적 충격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은 성경을 바탕으로 기도와 영성을 앞세우고 성경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4. 방학을 맞아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함으로 교회 부흥과 지역사회에 교회를 알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주제로 할렐루야교회 베델레렘교회서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역사를 이루는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5. 기도제목

- 1) 신학교 기숙사 신축 30만불을 놓고 기도중입니다. 타국에서 학사증을 취득하기 위해 문이 이곳저곳서 오는데 기숙사가 없어 학생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도시에 분교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2) 20년 된 학교 건물이 낡아 2018년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신입생을 받도록
- 3) 종교개혁 500주년(10월 24-29일) 특별행사로 은혜로운 프로그램이 되도록(오시는 두 감사 교수와 목사님을 성령으로 불렀다 달라고...)
- 4) 교회와 학교와 신학대학에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한 파라과이에서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 드립니다.

E-mail: jeonggp@hotmail.com

반공포로 강희동, 문명철, 이준희는 국적 없이 브라질 신학교서 공부, 안수 받고 사역 공식적 이민은 1962년, 선교사는 한성욱(1964) 시작으로 김계용 황문규 박광자 김성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조인이 있었다. 그 조인에 따라 포로교환이 있었고, 중립국을 택한 사람들 가운데 50명이 인도를 거쳐 브라질에 입국한 반공포로들은 국적을 포기하고 제3국을 택하였기에 무국적을 의미하는 인데퀴니도(indefinido)의 증명을 받고 1956년 2월 6일 리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에 도착했다.

이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많았으며 목회자 자녀들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강희동, 이준희, 문명철은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고 백영훈은 평신도 선교사로 리오 데 자네이로 주 자카레빠우아 지역에 백 기술고등학교(Colegio Tecnico Baik)을 설립하였으며, 임창용은 의학박사로 활동을 하였고 김시봉은 음악가로 성가대 지휘를 하였다. 주영복은 최초로 완벽한 포한사전을 펴내었다. 이들은 국적 없는 한인으로서 브라질 한인 선교의 선구자로서 많은 공헌하였다.

이들은 한곳에 모여 살지 않고 브라질 전역에 흩어져 교단 안에 한 멤버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였다. 브라질은 크게 북부, 북동부, 중서부, 남동부, 남부 5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북부지역(Regiao Nordeste)은 아마존(Amazon), 빠라(Para), 아크레(Acre) 3개주와 호라이마(Roraima), 아마빠(Amapa) 2개 연방 직할령으로 총 5개주로 흔히 아마존그룹이라 한

수도 브라질리아(Brasilia)가 있다.

남동부지역(Regiao Sudeste)은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 에스페리토 산토(Espirito Santo), 상 파울로(Sao Paulo), 히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 4개주로 되어 있다.

남부지역(Regiao Sul)은 빠라나(Parana), 산파 까타리나(Santa Catarina), 히오 그란디 술(Rio Grande do Sul) 3개주로 되어 있다.

국적 없는 한인 반공포로인 강희동, 문명철, 이준희는 브라질 현지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 현지인 교단 소속목사로서 사역을 하였다.

강희동 목사는 브라질 남부지역의 빠라나(Parana)주에서, 이준희 목사는 브라질 중서부지역에서 브라질 장로교 내지 선교사역을 감당했고, 문명철 목사는 감리교 소속으로 브라질 남부지역 상파울로에서, 그리고 백영훈은 평신도로서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교육선교사역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한국이라는 국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 사역을 하였다. 이들은 선교훈련의 과정도, 파송식도, 후원교회도 없이 사역을 하였지만 여호와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었고 성령님이 함께 동역하시었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선교사역을 수행하였다.

었다.

3) 초기 파송선교사

브라질에 한국인이 산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1920년경부터) 공식적인 브라질 이민역사는 1962년 12월 18일 부산항을 출발한 화란 유람선 치차랭카호를 타고 온 17가구 92명이 55일 걸려 1963년 2월 22일 브라질 산토스항에 도착한 시간으로 이민역사를 말한다. 김용식 박사는 3가지 유형으로 브라질 이민역사를 분류한다.

첫째는 해외 이주법 공포(1962년 2월) 전에 들어온 문화사절단(1961년 12월)이 추진한 이민, 둘째는 해외 이주법 공포 후에 정식으로 들어온 농업 이민(1962년 12월 18일 화란 유람선 치차랭카호로 부산항을 출발한 17가구(92명)가 55일 항해 후 1963년 2월 12일 산토스항에 도착한 후 계속 이어진 이민 케이스, 셋째로 개인 이민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무렵 교단 및 선교단체로부터 브라질 파송선교사로 입국한 초기선교사는 다음과 같다.

△한성욱 선교사-1964년 9월 3일 미국 성서감리교단 선교부 파송 삼김계용 선교사-1967년 5월 14일 한국예수교장로회(통합) 외지선교위원회 파송 삼황문규 선교사-1968년 미국 남장로교단 선교부 파송 삼박광자 선

박광자 선교사는 재일한인교포이었으나 한국과 미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브라질 최초 한인여성 브라질 파송선교사로 북동부지역 타문화권 선교를 하였다.

양승만 선교사는 한국장로교(합동) 파송을 받아 아마존 지역에서 인디오 지도자 육성에 최선을 다하였다.

위클리프번역 선교사로 파송 받은 김성준 선교사(얼마 안되어 독립선교사로 일함)는 마포그로스 주에서 각각 브라질 현지인 및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지도자를 발굴하고 교육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사역을 꾸준히 실행해 오다가 사역을 마치고 현재는 한국에 있다.

김계용, 황문규, 한성욱, 박광자, 양승만, 김성준 선교사의 선교행적은 이들이 남겨 놓은 서적을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또한 "브라질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선교전략 연구"(필자 저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브라질 디아스포라 초기 한인선교사는 한성욱, 김계용, 황문규, 박광자, 김성준을 들 수 있다. 그다음은 1968년 3월에 예정활동 1호 선교사인 양승만 선교사이다. 1982년 2월 9일 강성철 선교사, 1983년 강성일 선교사. 1984년 홍순표 선교사 이어 100여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브라질로 파송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kangsunghuel@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8 63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금오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3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1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213)388-701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전 5:30 EM예배: 오전 6:30 금요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6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주둔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949)854-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crcs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예배: 오후 1:20 영어권(청소·KDC, 컨팅드칼렌타)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7:30 Tel: (213)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7:30 Tel: (213)559-7728 (전화: 김경희),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월)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대학부: 오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전 8:00 주일 학교: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여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www.bethel.org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별(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대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9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주일 학교: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ircv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새벽기도회: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l.com Tel: (714)446-626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세움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오전 6:00(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s.org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mo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ly.com / e-mail: pastor@aconestonely.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9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영)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제 16장 사모가 범하기 쉬운 실책

사모가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 신경을 쓰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책을 지지를 때가 있다. 그러므로 사모는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쉽게 저지르기 쉬운 실책들을 미리 알아 피함으로 아름답고 알차게 목회하는 사역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1. 기사사 사감이나 운동선수의 코치가 되지 말라

사모가 남편 목사의 사역을 돕는다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건의하지 않고 명령하는 조로, 지시하는 조로 지나친 잔소리를 퍼부을 때 남편은 질색을 한다. 목사는 교회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데 사모까지 스트레스를 주면 수명이 단축된다. 여러 가지로 신경과민, 불면증, 고혈압, 식욕상실, 의욕상실에 빠져 오히려 목회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명령조나 주장하는 자세를 피하라. "목사님, 그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러이러한데요, 참조해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모는 남편의 위치에 서서 특권을 대행하거나 목사처럼 명령하거나 지배하는 월권 행위를 하는 실책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남편 목사의 목회영역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하거나 사모의 생각을 주입 시키려고 하지 말라.

필자가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부흥성회를 인도했을 때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부터 치명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사모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당회장 목사님은 항상 사모의 지시를 받고 결정을 하십니다"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지도자인 목사님의 영역을 침해하여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교인들은 사모에 의해 움직이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목회자를 원한다. 함께 목회에 부름을 받은 사모가 교회의 중추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직접 결정에 좌지우지하며 월권행위를 하는 것은 다르다.

4. 위험한 금전 거래를 삼가라

목회자와 사모는 많은 교회 일에 시달린다. 밤늦도록 심방하며 또 목사님은 새벽기도회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늘 잠이 부족하다보니 쉽게 피곤하다. 그러나 성도들 앞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다는 등 건강에 대한 불평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은혜스럽다. 필자의 남편 목사는 성도들이 "목사님, 피곤하지요?" 하며 인사를 하면 항상 "한창 나이에 뭐가 피곤합니까?"하며 대답한다.

성도들은 자기 목사님이나 사모가 건강한 것을 좋아하지 자주 아프다고 하면 싫어한다. 또 아프다고 해도 성도들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힘써야 한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목사가 아프면 성도들이 처음에는 동정을 하지만 계속 자주 아프면 후임목사 청빙을 이수화한다.

6. 비난이나 비판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을 갖지 말라

교회의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책임은 지도자인 담임목사에게 돌아간다. 교회의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매일가정예배

월 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롬9:1-3)찬139장

바울이 믿기 전에 가진 열심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도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뜻)를 알아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곧, 성경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을 바로 알 때 참 지식 곧,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갖게 됩니다(요17:3). 둘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 지식은 언제나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후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셋째,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에 굴복시켜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인 복음의 삶은 한마디로 자기나 하나님이나에 대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이 바른 지식을 가진 삶입니다(눅9:23). 그런 지식 안에서 자라갑시다.

화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롬10:4-7)찬31장

율법의 마침을 아는 지식이 복음 속에 포함돼야합니다. 어떻게 이 확신이 우리의 구원을 풍성하게 합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 때문입니다(4). 하나님의 의, 인, 신을 보인 율법의 표준에 이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유일한 중보자가 돼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자기 백성의 모든 불의를 폐하셨습니다. 둘째, 모세가 보인 율법

의 표준에 이르게 됨은 그의 의를 따라 살 때 이르는 것입니다(5). 이행덕의 기준은 변함 없습니다. 복음 안에 이 기준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이신독의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때 이 의를 얻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완성한 그 의를 믿음으로 소유하게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수 구원받는 길(롬10:8-11)찬544장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는 길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완성한 후 구원받는 길을 보여준 사도는 아주 간단한 구원공식을 말해줍니다. 첫째,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전파는 말씀을 가까이 가져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합니다. 둘째, 마음으로 믿어야합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말씀일지라도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구원에 이

르지 못합니다. 셋째, 마음으로 믿은 것으로 고백해야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 것으로 받았음을 선포할 때 구원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개인 마음의 믿음은 교회의 공적모임에 고백으로 표현되어야합니다. 성령은 오셔서 바로 이런 진실과 진실의 만남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쉬운 구원의 공식을 날마다 사용해 많은 영혼을 구합니다.

목 구원의 보편성(롬10:12-13)찬309장

본래 복음은 모든 열방 속의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뜻을 자기 민족만을 위한 것으로 만들려다가 버림받았습니다. 사도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인종차별을 넘은 복음이야말로 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려는 약속은 벌써 복음의 보편성(창12:3)을 말한 것입니다. 둘째,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의 주가 되심을 선언하셨습니

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부요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한된 구원이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 복음입니다. 실제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활짝 복음의 문이 열린 우리 시대에 그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십시오.

금 복음전파의 중요성(롬10:14-15)찬500장

먼저 유대인에게 증거된 복음이 다음에 이방인에게 증거 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 때 우리는 복음전파의 중요성을 발견합니다. 세 단계를 걸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불러야 합니다. 마음의 믿음은 입술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부릅니다. 둘째, 믿어야 합니다. 믿을 내용인 복음을 알 때 받아들입니다. 셋째, 전해야합니다. 개인이 받

아들이도록 전도자의 수고가 따라야합니다. 성령은 이 과정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동기는 복음전파입니다. 증거를 통해 복음이 알려지고, 알려진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복음전파에 심혈을 쏟으십시오.

토 믿음이 발생하는 곳(롬10:16-18)찬429장

구원을 얻는데 필수불가결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첫째, 말씀에서 옵니다. 성경을 떠난 믿음은 거짓입니다. 오직 성경에 뿌리박은 구원만이 보장을 받습니다. 성경에 의존된 생각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 들어야합니다. 듣는 기능은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잘 듣는 마음이 욱도 같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게 돼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하기보다 무슨 말

씀을 하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받는 일에 우선해야합니다. 이것은 모두 성령이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일입니다. 셋째, 성경을 통해 믿음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산 말씀으로 성령의 겹입니다. 내가 시작하는 것 같으나 마침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구원을 누리기 위해 성경에 착념해야합니다.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23)



이희숙 사모

다"하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드려야 한다. 그리하여 목사님 본인이 직접 기도하고 결정을 하도록 한다.

사모가 목회자의 목회를 돕기 위해 신경을 쓰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책을 지지를 때가 있다. 그러므로 사모는 목회자의 사역을 도우면서 쉽게 저지르기 쉬운 실책들을 미리 알아 피함으로 아름답고 알차게 목회하는 사역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2. 함부로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남편을 여당이라 생각하고 자기는 여당 쪽에서 책임 충공을 하듯 습관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금물이다. 당에는 당수가 있다. 여당의 당수는 하나님이고 여당의 당수는 마귀다. 특히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차라리 목회를 접어 치우라"하는 식으로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우들 앞에서 목사를 비난하거나 흉보는 일은 자살행위라고 생각하라. 이것은 남편 목사님이 사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심해야 한다.

목회자 가정은 성도들과 금전거래를 해서 절대로 안된다. 돈을 꾸는 일이나 꾸어주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는 일 등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체 성도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여유가 있어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상관없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인 목사가 자연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 자연적으로 목사나 사모도 그 어려움에 동참하게 된다. 어떤 목사 사모는 솔직하게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서 목회 일에 일체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친구 사모는 필자에게 "사모가 교회 일을 모르면 모를수록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라고 했다. 자신은 뒤에서 기도만 하다가 구설수에도 오르지 않고 비판도 받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는 것이다.

사모는 남편목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사모가 모든 면에서 다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해도 남편 목사와 불편한 관계를 갖거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이다. 가장 중요한 남편 대장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남편 목사이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 남편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모이기 전에 한 남자의 아내임을 명심해서 목회 일에 중점을 두다가 내 몸에서 남편을 잃지 않도록 남편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목회자 가정은 성도들과 금전거래를 해서 절대로 안된다. 돈을 꾸는 일이나 꾸어주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는 일 등 다른 사람을 소개해서 꾸어주도록 중간 역할을 해서도 안된다. 물론 당장은 인간적으로 야속한 것 같지만 후에 교인 잃고 돈 잃고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길이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다"라는 말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지혜롭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사모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묻어두고 있다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보아야 한다.

3. 남편의 권한을 침범하는 월권행위를 삼가라

사모는 높이 불러주는 호칭일 뿐 권한

5. 건강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라

'사탄은 마치 마귀처럼 앞에서 떠돌아다니는 생쥐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항상 교회의 작은 문제로 큰 문제처럼 부각시켜서 좌절시키는 사탄의 계락을 물리치고 비난이나 비판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사모는 건설적인 제안이나 비판은 감사히 받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hslee39@sbcglobal.net

Worldwide Church (해위 교회)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image of two angels and a grid of 30 church branches with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service times.

인/터/뷰 김영자 선교사 (우간다)

사역 7년차...“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길이 멀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한지 7년째를 맞는 김영자 선교사(뉴욕 뉴하트선교교회 파송/Seed Usa 소속)가 지난 18일 남가주주둔한 교회(담임 김현인 목사)를 방문, 사역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영자 선교사는 선교지로 떠나기 전 미 동부지역에서 30여년을 지내며 퀸츠한인교회와 뉴하트선교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해왔다. 그러던 그가 아프리카 단기선교를 통해 아프리카를 향한 소망을 갖게 됐고 결국 2010년 우간다로 향해 출발한 뒤 7년을 그들과 함께 호흡했다.

그의 첫 마디는 “처음 1기 사역을 할 때는 주어진 대로 사역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선교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지요. 이제야 선교의 눈을 열게 해 주시고 고



사역이야기를 들려주며 환하게 웃는 김영자 선교사

다.

우간다에 시작된 LOLA 사역

우간다에 훈련생들이 늘어나고 훈련받은 자들이 나가 교회를 개척하고, 빈민촌에 거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은 LOLA(Light of Love Africa) 사역이라고 말한다.

뉴하트선교교회 담임 정민철牧사는 우간다를 30여회 오고 갔다. 이 은혜의 집회를 위해 정민철牧사는 혼신을 다하고 있다. 매 회마다 섬기는 이들이 함께 우간다로 와서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다.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며 은혜의 장을 편다. 지난 5월에도 뉴하트미선교회 팀이 와서 14회와 15회를 마쳤다.

14회는 All Natio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한국의

목회자 교육, 빈민촌 교회개척, 세라믹 정수기 공급 LOLA 사역으로 지역교회 목회자 화해 기적 일으켜

민하게 하심이 감사할 뿐입니다”였다.

교육사역(Teaching ministry)

김 선교사의 첫 사역은 올네이션스 신학교(All Nations Theological College)에서 신학이론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청소년들과 만나게 된 김 선교사는 그들을 믿음의 리더로 세우기 위한 선교센터의 비전을 품게 됐다.

우간다에는 교회도 목사도 많지만 목자들 가운데는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도 있다. 교육수준이 낮거나 신학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을 양육하고 청년 리더로 세워 아프리카 이슬람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생겼다.

이 비전은 그를 파송한 뉴하트선교교회의 선교비전과 맞물려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결국 2014년 New Heart Global Mission 선교사 훈련학교를 시작하고 원장으로 섬기며 그들과 함께 교회도 개척했다.

“이 훈련학교는 뉴욕의 뉴하트선교교회의 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년 과정으로(15명 제한) 신학, 성경, 선교 등 40점을 이수해야 하고 제자훈련으로 성경일독, 말씀 암송, QT를 하고 있고 두 학기가 끝나면 타 문화선교의 경험을 위해 1개월간 카라모자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선교사로 파송하지만 후원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면 하나님

의 인도하심이 있어 곧 후원처가 연결되지요. 지금은 그 학생들의 실천 목회 훈련의 과정으로 학생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근황을 들려준다.

빈민촌 교회개척, 세라믹 정수기 공급

그가 개척해 섬기고 있는 교회는 빈민촌 가운데 세워진 ‘어촌교회’.

그곳 빈민촌에 사는 현지인들은 1불의 월세를 내고 산다. 그러니 그들의 빈곤 상태를 벗출 수 있지 않을까. ‘순바닥만 한 흙집에서 옥수수가루와 콩이 없어 전전 금금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이다.

그러나 김 선교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고 능력의 복음과 은혜를 전하며 그 분이 내리시는 공회와 기적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한다.

이곳 빈민촌을 보며 김 선교사의 문화 충격 중 하나는 ‘높은 사망률’이라고 말한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는지 여기서 오래 살지 않으면 감이 안 오지요. 저도 만일 교회를 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했다면 이렇게 피부에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이곳 목사님들은 장례 치르기로 매우 바쁘지요. 죽음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매일 마시는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들은 깨끗한 물을 모르고 삼니

다. 빅토리아 호수 물을 마시고 음식도 만들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합니다. 우물을 누가 파주지 않으면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마시고 삼니다. 빗물 받아먹기도 쉽지 않지요. 빗물을 받으면 물받이 틀도 해놓고, 큰 통도 사 놓아야 합니다. 매일 주식으로 필요한 옥수수가루와 콩 구입도 어려워 전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사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매일 병에 걸리고 빨리 약을 먹지 않으면 그만 쉽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정황을 알고 있던 한국인 구슬(Kathy Koo) 자매에 의해 아프리카가 건강해 지고 있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며 정수기를 소개한다.

이 자매는 하버드대학에서 BA를 하고 우간다에 와서 지난 7년간 연구해낸 가격의 정수기를 만들어 낸 자랑스런 한국자매다. 올 여름에는 미국에 들어와 의과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지만 정수기공장은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한다.

그 정수기는 현재 6곳의 선장가 마을에 460개를 보급했다. 그러나 이전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선교사의 말이다. 정수기가 필요한 곳은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 파송교회에서도 이 사역을 위해 1만5천 달러를 지원하기로 책정했다.

앞으로 이 정수기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김 선교사의 새로운 꿈이다. 이 정수기의 가격은 23달러. 이 사역에 동참할 분도 기다린다고 귀땀한

KEMAN선교회(소속)와 New Heart Global Mission의 학생 67명이 참석했고, 15회는 우간다 북쪽 아잠마니에 있는 남수단 난민촌에서 60명의 남수단 목사들을 버스를 대절해 모셔와 섬겼다.

이 LOLA 사역은 서로 적으로 점철해오던 딩카부족의 목사들과 누에로 부족의 목사들이 서로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냈다.

“우간다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은 정 목사와 뉴하트선교교회 성도들의 끊임없는 선교의 열정의 열매”라고 김영자 선교사는 거듭 자신의 파송교회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김 선교사가 아프리카를 품게 된 것도 바로 이 LOLA 사역에 동참하면서 시작했다. LOLA 사역 섬김이로 우간다에 첫 발을 내딛었고 결국 그곳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 우간다에서 사역한지 7년 밖에 안 되어서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길이 멀다”고 겸허히 말하는 김 선교사.

아프리카에 살다보니 얼굴빛도 구리 빛으로 변했고 짙은 목이 울린 머리며 그 모습이 순박하고 평범한 모습이다. 그러나 우간다를 소개하는 그의 눈빛은 그들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에 한 시간이 아깝지만 하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심방세동

심하면 합병증으로 뇌혈관 장애 유발

부정맥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최근 늘고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부정맥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정맥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치료가 수술이 필요한 때도 있다.

-60대 초반의 남성 T씨는 사흘 전부터 심하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붓는 것을 느꼈다. T씨는 증권회사에 다니다가 6개월 전에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고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줄 알고 안정제를 먹어보았지만 증상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병원에 오기 전날은 누워 있으면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호흡이 곤란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증도 느꼈다. T씨는 과거에 고지혈증을 앓은 것 외에는 다른 질환은 없었다. T씨를 검진한 결과 혈압은 100/60mmHg, 맥박은 분당 135회로 매우 빨랐다. 혈중 산소 농도는 94퍼센트였다. 경부 정맥이 커져 보였고 심장 청진 상 심박동이 매우 빨랐다. 또 폐 청진 상 폐기저부에 수포음이 들렸고 하지의 심한 부종이 관찰되었다. 심전도 검사 상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이 보였고 흉부 사진 상 폐부종의 소견이 보였다. T씨는 심방세동으로 인한 빈맥으로 진단되었고 폐부종으로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입원 후 정밀 혈액검사 상 갑상샘항진증이 진단되었다.-

심장은 두 개의 작은 방인 심방과 2개의 큰 방인 심실로 이루어져 있다.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전기 자극이 시작하는 출발점은 좌측 심방인 좌심방인데 이 전기 자극의 전달에 이상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심박동이 매우 빠르거나 느려진다. 이를 심방세동이라 한다.

심방세동은 미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흔한 심장질환이다. 나이와 정비례해서 그 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뇌혈관 질환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심방세동의 원인은 만성 고혈압으로 인해서 심장에 오랫동안 무리를 주거나 심장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관상동맥 질환, 심장 밸브의 이상으로 오랫동안 좌심방에 압력을 주어서 심방이 커져있는 경우 등이며, 심장 수술 직후 일시적으로 올수도 있고 만성 폐 질환이나 심장이 약해지는 심부전증 등에서 올 수 있다. T씨와 같이 갑상샘항진증도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커피의 카페인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수면무호흡증도 심방세동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심방세동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뇌혈관 질환(중풍)이 생기는 원인은 심방세동 시 신장 근육이 제대로 수축을 못할 경우 혈전이 생길 수 있는데 이 혈전이 뇌로 갈 경우는 중풍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많고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심방세동 환자는 의사와 상의해 항응고제를 장기간 투여해야 한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